

VI. 의 사 록



1. 개 회 식

**사회 【이중윤 (사)한일
경제협회 전무이사, 이
하 동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43회 한일경제
인회의에 참석해 주서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진행
을 맡게 될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이중윤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하게 됩
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리시버는 채
널 1이 한국어, 채널 2가 일본어가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갖고 계신 휴대폰
은 진동모드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의에 앞서서,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 측 단장단의
한국 정부에 대한 예방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측 예방단 7명은 조석래 한일경제
협회 회장님의 안내로 어제 9월 27일 오후
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님과 김종훈 외

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님, 류성걸 기획
재정부 차관님을 각각 예방하였으며, 오늘
은 이명박 대통령님을 예방하였습니다. 예
방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지난 3월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
진으로 일본인들이 입은 고통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또한
그 재난을 관민이 하나가 되어 잘 극복하
고 있어 한국인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한국인들이 보
인 진심 어린 성의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무척 감사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으로 한일 간에는 활발한 무역·투자활동,
중소기업 간 협력, 인재교류, 제3국 공동진
출, 그리고 500만 명이 넘는 풀뿌리 교류
등 한일은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이 되었다
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에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의 급변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에는 더
욱 협력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한일 간에
는 FTA/EPA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
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한일간 FTA/
EPA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양국이 Win-
Win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번 회

의를 통해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방단의 활동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측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측 단장이신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님입니다. 다음은 일본 측 단장이신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입니다. 계속해서 일본 측의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국특명전권대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일본측 기조연설을 해주실 가토 료조 일본프로야구 총재님입니다. 다음은 일한경제협회 이이지마 히데타네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한국 측의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 측 기조연설을 해 주실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강신호 전경련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경제인회의의 관례에 따라 양국 경제협회 회장께서 오늘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나눠드린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단장인사

사회 : 그럼 식순에 따라 양측 단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 단장이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조석래 한국측 대표단 단장



먼저,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복구되어 일본경제가 옛날의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를 위해 멀리서 와주신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국 대표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가 있음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님과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주한일본대사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님과 가토 료조(加藤 良三) 일본프로야구 총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로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신흥국가들도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2008년 리먼쇼크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다행히도 한일 두 나라의 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지진이 났을 때는 많은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연금을 모아 보냄으로써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본에서는 한류 붐이 더욱 확산되어 K-Pop이나 한국 드라마, 음식들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국을 오가는

사람들이 한 해 500만 명을 훨씬 넘을 정도로 인적교류가 활발해졌고, 최근에는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일본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 국민들 사이에 친근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교류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일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늘어났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도 지진 이후 빠르게 늘고 있어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44%나 늘어나 일본이 한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 같은 좋은 분위기를 살려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을 추진하여 두 나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통합 경제권을 이루게 되면, 두 나라에 막대한 시장 창출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구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줄어든 것이며, 시장의 확대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합된 시장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술의 진보가 촉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인들이 양국의 경제통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역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FTA나 EPA를 통해 서로 간에 장벽을 없앴으로써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상호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려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가깝고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법인세나 전력비용이 적게 드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력은 개별기

업들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힘을 합쳐 제3국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협력을 통해 양국기업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방안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두 나라의 기업들이 사업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규제완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며, 노사문제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국과 일본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서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통해 주장한 것처럼,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장 굳게 손을 맞잡아야 하는 관계이며, 그 연대를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같이 하는 한일 두 나라가 중심이 돼서 아시아의 시대를 주도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양국의 경제인들이 지혜를 모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하나가 되어 합심단합하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되고, 양국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조석래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 측 단장이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佐々木 幹夫
(SASAKI Mikio)
일본측 대표단 단장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님, 무토 마사토시 주 대한민국 일본국특명전권대사님, 그리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일한경제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사키 미키오입니다. 여러분 매우 바쁘신 가운데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및 산업기술페어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회에 있어 일본 측을 대표해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때에 한국 여러분께서 따뜻한 온정과 위로와 격려,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 지진 후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구조건과 구조대를 파견해주셨고 많은 성금과 음료수, 식료품 등을 비롯하여 발전기와 연료의 긴급지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지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일본 경제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일본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지진이 발생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복구작업은 아직 중간단계에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과 관련해서는 한국 여러분께도 큰 불안감을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사고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수습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3회 회의는 원래 올해 4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디다만,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6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

습니다. 이 개최일자 연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회의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석래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 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어려움을 맞이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인회의는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이 해마다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지진의 영향을 잘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제43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테마와 관련해서 제가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일 양국의 FTA/EPA 체결과 관련해서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G-20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APEC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경제관계를 더욱 더 강화시키고, 사람, 물자, 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써 동아시아 경제의 일체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FTA/EPA의 체결은 이를 위한 첫 걸음이며, 한일 양국 정부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FTA/EPA 교섭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한일 양국에서 저마다의 입장과 사정이 있겠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양국의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작은 의견차이는 배제하고 큰 뜻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신산업무역회의의 한국 측 오영호 체어맨, 그리고 일본 측의 아소 체어맨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한

일 양국의 폭넓은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격 상호인증, 양국의 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제언을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들을 FTA/EPA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들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도 조속한 FTA/EPA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한일이 연계한 글로벌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일기업의 연계를 통한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탄생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에너지,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니켈개발과 모잠비크에서의 석탄개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의 LNG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랜트 수출, 인프라 분야에서는 아부다비에서의 발전사업과 인도에서의 지하철 차량의 공급, 모로코에서의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일 기업이 서로의 강점과 장점을 잘 살리면서 손을 맞잡고 개도국을 비롯한 국가와 지역의 인프라 구축, 사회개발, 나아가서는 지역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국제협력은행, 한국의 개발은행 등 정부기관의 제도금융을 통한 지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연대의 프로젝트(PPP프로젝트)를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일 양국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한일 인재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4년에 시작한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는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생이 된 다음에도, 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회의와 모임을 갖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양국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각각 일본과 한국에 약 2달 정도 체류하면서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를 하는 프로젝트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한국 측과 협력해서 이러한 다음 세대를 깊어질 한일 젊은이들의 교류촉진과 육성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정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치와 경제를 초월한 폭넓은 한일교류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즉, 일요일에 이곳 서울에서 한일 교류축제 한마당의 한국 측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진 이후에 개최되어서 한국 분들로부터 정말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직후인 10월 1일과 2일 즉, 이번 주말인데요. 도쿄에서 공존공영의 21세기를 기본개념으로 삼은 한일 교류축제 한마당이 일본 측의 행사로 개최됩니다. 이러한 시민차원에서의 풀뿌리 교류는 대단히 중요하며 저희로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내년에 여수에서 EXPO가 개최되고 또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국제적인 이벤트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웃나라인 우리 일본에 있어서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진심으로 행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저희로서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소중한 파트너이신 한일경제협회가 올해 2월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석래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협회의 유대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어 양국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새로운 시대의 한일 경제관계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알찬 회의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빈인사

사회 : 사사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국의 내빈축사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측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님께서 축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미나사마 오하요 고자이마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국 대사님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오늘 한일경제협력의 대표적 행사인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와 제4회 한일산업기술페어가 성황리에 개최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발족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어 대표적인 민간경제체로 자리를 잡았으며, 양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산업기술페어는 한일협력상 수여, 각종 상담회 등 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는 양국 간 대표적인 산업교류의 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두 행사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대표적인 산업협력이 실질적 협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인 간의 우의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일 양국 경제인 여러분!

먼저 금년 3월 대지진 발생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희생이 발생한 데 대해 일본 경제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지진이란 큰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이 일치단결되어 재난을 극복하는 모습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으며 일본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복구지원 물결 속에 일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 일본 국민들의 마음에 전해져, 오히려 양국 국민이 더욱 가까워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재차 확인된 양국 국민 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양국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양국은 그간 상호 경제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확대·심화되어 왔습니다. 한일 양국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925억불을 기록하였고, 양국은 서로에게 세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일본의 대한투자액은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액의 15%인 259억불로 전체 투자국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전자, 철강, 조선 등과 같은 제조업분야에서도 선의의 경쟁과 유기적 분업을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근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으로부터의 핵심부품 조달의 차질은 한국의 제조업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반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간 한일 경제인회의를 통한 양국 경제인 간의 꾸준한 대화와 노력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이러한 민간 경제 교류가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및 그리스·이탈리아 등 유럽發 재정위기로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또 아시아 경제의 핵심리더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은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배타적인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첫째, 한일 양국이 공조하여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 협력모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외에 자원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양국이 공조하여 최근의 자원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 수요처인 양국이 자원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협상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일 양국기업이 제3국 인프라시장 및 해외 자원개발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미쓰비시상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동기-세노르 LNG 프로젝트는 인프라·자원개발 분야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의 프로젝트 발굴 및 금융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엔지니어링·시공능력이 결합한다면 더욱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일본 은행 최초로 한국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할 목적으로 한국에 「글로벌 코리아 영업부」를

설치(2011.4)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한국기업과 일본 금융기관의 협력이 증가되어 양국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양국기업이 제3국에서의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양국기업의 제3국 진출 지원체계 마련 등 양국 정부차원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재구축되도록 양국은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앞선 부품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일본기업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 이 분야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수요자와 공급자 관계를 넘어 첨단 부품소재 분야에서 세계시장으로 동반진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레이社가 지난 6월 기공식을 가지고 추진 중인 탄소섬유 생산공장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구미, 포항 등 4개 지역에 조성된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입지·세제·현금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보다 많은 일본기업이 참여해서 좋은 성공사례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론, 향후 일본 재해복구 및 부흥과정에서도 양국이 협력하여 일본 내 생산 네트워크가 조기에 재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정부가 경제부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들이 강점을 갖는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일본이 지진피해를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녹색산업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국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

적 도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미래비전으로 채택하고,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경제사회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녹색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스마트그리드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Cool Earth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국 정부는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고, 양국 간 정책적 유사성도 높아 향후 양국 기업 간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장 부속문서」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추진을 위한 협력에 3국간 합의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동합의를 바탕으로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이 '녹색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공동연구나 투자 등 구체적인 협력을 실행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그동안 기업인들은 정부 간 협력이 미치지 않은 영역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가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인 여러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본 속담에 '물고기가 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물 역시 물고기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국 경제인들이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상호 Win-Win하는 협력관계에 힘쓸 때, 양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국 기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 최중경 장관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 측 내빈으로서 경제산업성의 에다노 유키오 대신님의 축사를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국 특명전권대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枝野 幸男

(EDANO Yukio)

경제산업성 대신

(대독: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대사)



오늘 이 자리에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성 대신께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만, 국회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다노 대신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 오늘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 번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본인이 한국의 따뜻한 지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국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렸습니다만, 꾸준히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구와 부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루빨리 일본이 재생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새롭게 취임한 노다 총리대신 휘하에서 미래지향적인 새로

운 100년을 위해 가일층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노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지진때는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도 있었습니지만, 많은 부품소재의 생산거점이 생산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부품과 액정패널용 부품 등 일본산 핵심부품과 소재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필사적인 복구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미 많은 기업에서는 생산이 회복되고 조만간 한국기업과의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일 산업계가 앞으로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대지진 이전에 비해서 더욱 견고한 양국 간의 공급망을 구축해 간다면 세계경제 발전에 지금까지의 이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일 양국의 기업은 지금까지도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브랜드력과 마케팅력, 기술개발력을 꾸준히 육성해 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의 방대한 인프라 수요 등을 배경으로 UAE에서의 화력 발전소 플랜트의 공동수주와 브라질에서의 광산권익의 공동취득 등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더욱 더 관계를 다양화시키고 긴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의 글로벌한 활동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場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 모두 각국과의 FTA/EPA체결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웃 나라 간의 FTA/EPA 교섭이 오랜 세월 동안 중단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부디 이

번 회의에서 한일 경제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양국 경제계에서 FTA/EPA교섭 재개를 위한 큰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성은 FTA/EPA교섭의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 11월에 자동차부품소재 조달상담회를 일본자동차공업회의 협력 하에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대지진의 영향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공급망의 재생등을 배경으로 일본의 경기는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엔화강세가 일본경기 침체의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해외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기업이 엔화강세의 메리트를 이번 기회에 최대한 살리면서 한국기업과 새로운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부품수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기업 간의 연대가 더욱 더 강화·확대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성공,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무토 대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일 간 산업협력 및 교류증진에 공헌한 기업 및 유공자에게 한일산업협력상을 수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산업협력상 수상식 종료 후, 단상정리, 커피브레이크. 4시에 회의 속개)
- 수상기업 및 수상자 일람은 부록 1 자료 참조 -

2. 기조연설

사회 :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양국 단장님, 그리고 기조연설, 특별강연, 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해 주실 강연자 분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조연설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회의 공동의장이신 조석래 회장님과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양국 의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조석래 단장 :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사키 회장님과 같이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키 회장님께서 이번엔 처음 이런 일을 맡아 보시기 때문에 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먼저 한국 측으로부터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님께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공로명 이사장님께서 駐브라질대사와 駐소련대사를 역임하시고, 駐일본대사도 역임하셔서 외교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제일 권위자로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일포럼 회장, 한일신문사 아시아네트워크 회장, 그리고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명성 있는 외무부 장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로명 이사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1) 한국측 기조연설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



조석래 회장님과 사사키 미키오 양 공동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일 양국 경제인 대표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공로명입니다. 과찬의 말씀이 지나치셔서 어디 좀 숨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초대되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6년 전에도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러분께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특히 올해 회의에는 오랜 친구인 가토 료조 전 주미대사께서 참석하셔서 오래간만에 뵈어 대단히 기쁩니다. 가토 대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의 프로야구 커미셔너입니다만, 주미대사 시절에 미국 내셔널 리그의 시구식으로 뉴욕에 초대되어 스타디움에서 시구식을 하는 광경을 보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는데, 대사를 그만두시자마자 일본프로야구 커미셔너가 된 것을 보고 우연한 일은 아니구나 스스로 납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토 대사님의 커미셔너 취임을 축하 말씀 드리고, 한일 양국의 프로야구가 더욱 더 융성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 프로야구는 사상 최고의 관중을 동원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경축을 드립니다. 우선 동북지방을 휩쓸었던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에 의해서 큰 재해를 입는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도 부득이하게 대피소에서

지내시는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참사를 텔레비전 등을 통해 본 한국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친지들이 재난을 만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구호금 모금에 참가했습니다.

한국 적십자 등의 구원단체에 기탁한 의연금의 총액은 900억 원에 달하고, 이 의연금은 1980년대에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행했던 국민모금액의 배를 웃도는 금액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데모를 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데모를 쉬고 의연금을 대사관에 기탁했다는 이야기를 일본대사관의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번 재난에 대한 한국 국민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달아오른 한국 사람들의 우애(友愛)의 움직임이 일본 문부과학성에 의한 중등교과서의 독도에 대한 기술에 관한 지침이 보도되면서 위축된 일은 유감입니다. 경제에 문외한인 제 이야기는 당연히 경제 외의 이야기가 될 것을 양해 바랍니다.

많은 세계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한일 양국도 급부상을 계속하는 중국과 금후 어떻게 관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2008년의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비상(飛翔)하는 중국”의 이미지를 세계로 발신해 온 중국은 이미 작년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중국의 GDP는 아직 미국의 40%로, 5조 8000억 달러강(強)의 수준입니다. 하기가 순조롭게 가면 20년 후에는 미국의 GDP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경제력의 증대와 함께, 인민해방군의 군사비도 현저히 늘어남에 따라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최근,

신문 등에서 때때로 보도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항공모함의 획득이나 건조, 원자력 잠수함의 존재, 스텔스 기능을 장비한 전폭기 또는 위성 파괴능력을 갖춘 중국군이 무엇을 의도하는지에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측은 이와 같은 전력 현대화는 방어(防禦)적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강노력이 중국의 패권화(霸權化)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최근 중국을 방문한 Mike Mullen 미합동참모의장 및 Biden 미부대통령은 함께 우려(concerns)를 표하고, 중국 군부와 의 교류와 대화에 의한 관여(engagement)를 강화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예전에 나폴레옹은 “중국은 잠자게 되라. 일단 깨어나면 천지가 요동칠 것이다(Let China sleep, for when she awakes, the world will tremble)”라고 말했다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들은 세계를 진동시킬 것만 같은 중국의 비상을 봅니다. 작년 9월, 센카쿠제도(釣魚島) 주변에서 일어난 분쟁에서 중국이 보여준 강권적 대응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밤중에 주재외국대사를 불러내거나, 상호간의 접촉을 일절 중단하고, 희토류 교역제한을 과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는 다분히 대일약체외교(對日弱體外交)라는 비판을 두려워했던 강경조치같이 보였지만, 매우 이례적인 외교사례(外交事例)임에 틀림없습니다.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자신감에 넘쳐난 내셔널리즘의 발로에 의해 이러한 사태는 금후에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는 공산당체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국민중의 내셔널리즘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에 의한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사건 및 10월의 연평도 포격사건

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 편을 든 것은 고사하고, 그 포격사건 후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미국의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대한 것은 한국으로서는 당혹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항모가 군사연습을 위해 북경의 코앞에 나타난 것을 좌시(座視)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중국의 변명이었습니다.

중국의 서해에 대한 이러한 지정학적 견해는 한국의 전략적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카터 정부의 안보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컬럼비아대학의 브레진스키 박사가 그의 저서에서 세계의 지정학적 요충 중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을 들었던 사실이 생각납니다. 북경의 전략가들의 눈에는 서해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국은 지중해의 지브롤터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밀도가 높은 대함, 대공미사일로 무장한 한국은 중국해군의 서해에서의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남하가 열강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영국은 1885년 돌연 조선왕국의 사전양해 없이 한국 남단의 거문도(巨文島)를 점거하고 포대를 만들어 3년 정도 주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일, 이러한 행동에 대해 커존 경(후에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해, 남중국해 및 중국연해부에 있어서의 영국 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였고, 그 크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중요시합니다. 크기로 말하자면 중국 인구는 한국의 26배, 면적은 98배, GDP는 약 5.8배입니다. 대중무역은

전체의 21%를 차지합니다. (덧붙이자면 일본과 미국의 대중무역비율은 각각 20.7%, 14.3%다.) 작년 말 현재 일본, 미국,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액은 일본 42억달러(제4위), 미국 40억달러(제5위), 한국 20억달러(제6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수치가 나타내듯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와 달리, 지금 중국은 WTO 체제하에 있고, 냉전시대의 코뮌리스트 같은 제약은 없는 경제 파트너이자, 서로 소위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 면에서 미·중은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으며 의혹과 불신을 안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편전쟁 이래 굴절된 중국의 내셔널리즘은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군사력 증대와 함께 중국의 강한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중국이 패권적인 한 미국의 지도자들이 말하듯이 결코 미국은 태평양에서 그 프레젠텐스를 감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국익은 유럽의 그것에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두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프레젠텐스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동맹국과 함께 강화해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1.9.9. IHT지. J.Biden 참조)

마찬가지로 한일관계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견고한 것으로 하는 한편, 한일 쌍방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이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이 되며, 그것이 한일 쌍방의 국익에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주권

평등 아래, 중국과 평화 및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도 한일 양국은 미국의 동맹관계를 확고한 축으로 하고, 한편 한일 간의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공헌하는 길입니다. 첨언해서 소위 말하는 “버추얼 얼라이언스(Virtual alliance)”를 구축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국 친구들은 한국은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한국도 일본도 중국으로부터 발신되는 강한 힘을 대비(hedge)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것을 중국 측은 이해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리관유 전 수상은 아시아의 현인으로서 구미제국의 지도자들이 조언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2009년 10월 어느 석상에서 “중국은 너무나 커서 일본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중국의 무게와 능력에 대해 앞으로 20~30년 사이에 있어 어깨를 견줄 나라는 없다. 그 때문에 미국이 그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서 중국의 커다란 반발을 샀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명하지만, 우리들로서는 미국의 존재가 필요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중국과 사귀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이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한일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긴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웃나라 친구와 사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으로서 나는 양국 관계의 가시인 영토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긴급한 과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쌍방의 영유권 주장은 이미 60년 남짓 대립을 계

속하는 상태이고, 이 문제가 외교교섭이나 제3자에 의한 조정, 또는 제정에 의해서 해결될 전망이 당분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하면서, 이 문제에 불이 붙으면 2005년 봄에 봤듯이 전 국민적 이슈로서 양국관계를 근저로부터 흔들 수 있는 마그마의 힘을 발휘합니다. 거기서, 저는 다음과 같이 UN해양법에 기초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선의 획정에 의해 이 문제를 잠재울 안을 제안하고, 여러분들께 숙고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양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공식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나, UN해양법에 기초해서 양국 간 경제수역의 중간선을, 한국은 울릉도, 일본은 오키섬으로 획정하는 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일본은 다케시마(독도),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자국 중심의 강경안으로는 백년이 가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 중간선의 경우, 한국 측 해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부터 불만이 나올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UN해양법은 독도 같은 암초는 기점이 될 수 없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제2점은 그간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온 역사인식의 문제라든가 일본총리 및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문제 등은 다행히 일본의 민주당 정부에 의해 해결되어 가고, 또한 역사를 직시할 것을 명확히 하는 민주당의 자세로 인해 장래에 있어서도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신중한 낙관론을 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상호 간의 전략적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중, 한·일·중이 각자의 이익만을 취하려 제로섬 게임을 할 경우, 어느 나라

도 이익을 얻는 일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위, 윈윈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합니다. 그 해답은 공동체의 구축 속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의 결론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을 여러분께 보고하고 싶습니다.

이달 초, 서울 광화문 일각에서 한·일·중 3국 정부 간의 협력사무국이 설립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무국은 3국 수뇌 간 합의에 따라 3국 간의 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해가는 기능을 갖는 조직입니다. 우선 3국의 공무원 20명이 한국 사무국장, 일·중의 각 사무차장 하에 사무를 개시했습니다. 지금, 3국 간에는 수뇌회의를 비롯한 각료회의에서 실무레벨의 협의 등 약 50에 달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국이 초석이 되어 훗날 동아시아 공동체의 모체가 될 날이 올 것을 기원합니다. 지금 3,200명의 직원을 필요로 하는 EU 사무국도 처음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서 2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때로 서로 견제 또는 대치하는 일·중의 경쟁적 관계 사이에서 한국이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3국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제(諸)문제는 해결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석래 단장 : 공로명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떠오르는 중국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본측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사사키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사사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그럼 일본측의 기조강연자 가토 료조 총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토 총재님은 1965년에 도쿄대학을 졸업하시고 외무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시아부의 국장, 종합외교정책국장, 외무심의관 등 요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주미대사를 6년 반을 역임하시고 미국 정부로부터 가장 신뢰를 많이 받은 외교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프로야구의 총재로서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 프로야구의 교류에도 힘을 쓰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일 민주주의의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선진국의 한일의 연계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총재님 잘 부탁드립니다.

(2) 일본측 기조연설

『한일 민주주의의 미래전망』

加藤 良三

(KATO Ryoza)

일본프로페셔널야구
조직 커미셔너



조석래 회장님, 사사키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권위와 전통에 빛나는 일한경제협회 창립 50주년, 한일경제협회 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 기조강연의 기회를 얻었음을 크나큰 명예로 생각하며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공로명 전 장관님에 뒤이어 등단하게 되었음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로명 전 장관님께서서는 외무부장관, 주일대사 등의 요직을 역임하신 정치가(Statesman)이시며, 한일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시고 크게

이바지하셨음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지금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전략적인 사고와 그 통찰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은 제가 처음으로 공로명 전 장관님을 뵈었던 것은 197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였습니다.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재임했던 격동기의 와중(渦中)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공로명 전 장관님으로부터 외교관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업무자세에 관하여 자상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제 DNA 속에 깊게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 골프에 대해서도 훈도를 받았사오나 이상하게도 골프 솜씨는 나아지질 못했습니다. 저는 전반 9홀에서는 에이지슈터 실력인데 최근에는 거의 DL(부상자명단)에 등재되는 상태입니다. 제 야구 실력도 비등비등합니다만, 지금은 일본 프로야구 커미셔너 일도 맡아보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KPB)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프로야구는 국제무대에서도 손꼽히는 강팀들이며, 라이벌지간으로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으나 선수들끼리는 경기장을 떠나면 좋은 친구로서 서로 간의 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중국,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현재 약 1억 2천 6백만 정도인데 2050년에는 9천 9백만 대로 줄어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15세 이하 인구가 이 기간 동안에 반감(남자 840만→420만, 여자 810만→400만)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야구를 포함한 스포츠 전반에 걸쳐 극심한 영향(implication)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야구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대양주와의 연계를 지금

부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말솜드릴 나위도 없이 야구는 전체상 중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인구감소는 우리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모든 분야에서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논하는 시대입니다. 그 핵심은 필경 한·미·일을 포함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측이 엄청나게 기세를 더해가고 있는 ‘신흥국’을 인게이지하느냐, 즉 우리가 신봉하는 가치, 규범을 그들로 하여금 공유케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인게이지 되느냐, 즉 그들 방식에 우리가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문제에 결착이 날 때까지 십수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가 되겠지만, 이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초체력’ 즉 종합적인 경제·기술력, 군사력 분야에서 우리 측이 뒤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이른바 ‘소프트 파워’ 즉 사상의 힘, 문화적 매력,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여유로움과 윤택함 등의 면에서 우리 측이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측의 ‘의지력’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주미일본대사로 있을 적에 뉴욕타임스의 토머스 프리드먼씨와 몇 차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는 둥글지 않고 플랫(편평)해진다는 설을 피력했고, 이는 얼마 후에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분의 선견지명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지구는 ‘보털리스’해졌고 ‘세계화’가 진전되었습니다. 다만 프리드먼씨는 그 당시에 ‘플랫화’된 세계에서는 점차 민주주의가 진전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계화’는 오직 경제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정치(거버넌스)세계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민주화 압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리드먼씨가 퇴조되기를 기대했던 ‘비민주적 체제’에 연명 장치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은 면조차 있다고 봅니다.

‘세계화’ ‘보달리스화’ ‘플랫폼’은 결국 ‘주권국가’를 구성단위로 하는 국제사회의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 채 그 틀 안에서의 역학관계 만을 상대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인게이지 할 것인지, 그 귀추가 밝혀질 때까지 일부 유력 주권국가는 자기주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자기주장의 강화는 내셔널리즘의 에너지에 힘입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기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주권국가군(群)과 어떻게 타협점을 모색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들의 안보상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민주주의’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박학하지도 아니하여서 ‘민주주의’에 관한 지적분석을 시도할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40여년간 일본 외무성에 적을 두고 그 태반을 안보문제에 관여해 온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한 인상을 피력하는 정도입니다. 냉전이 끝났을 때 ‘민주주의 체제가 비민주주의 체제에 승리했다’고들 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는 ‘선택을 용인하는 체제’가 ‘선택을 용인하지 않는 체제’에 승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냉전에 승리한 ‘선택을 용인하는 체제’가 그 선택의 결과 형편없는 정권(Régime)을 탄생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런 Régime 보다도 ‘선택 없는 체제’ 하에서 賢君이 지배하는

사회 쪽이 훨씬 괜찮은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우위성을 부정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1947년의 의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치체제가 시도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잘못과 비애로 가득찬 이 세계에서 시도될 것이다. 그 누구도 민주주의가 완전하고 현명한 체제라고 보이게끔 할 수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제껏 시도된 민주주의 이외의 모든 정치형태를 제외한다면...’

자고로 지도자(리더)에게는 자신이 딛고 설 ‘정통성’(legitimacy)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하에서의 리더의 정통성은 ‘민 의’에 의해 선택되어 그 지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민주주의 체제의 리더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통성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구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70년 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리더의 정통성의 근거였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이러한 정통성의 근거가 될 만한 자격을 상실한 후에 비민주주의 체제 하의 리더는 이를 대신할 정통성의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내셔널리즘’, ‘애국주의’에서 그 대역을 찾으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즉효성을 갖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리더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부작용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기세등등한 민중에게 ‘사격정지’ 명령을 내릴 때 민중의 에너지가 ‘약골’인 중앙정부 즉 해당 리더 쪽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술한 ‘賢君’ 밑에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이룸으로써 정통성의

근거로 삼는 대응사례가 있음은 현실적 처방전으로서 쉽게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반론을 적용해서 살펴볼 때 비민주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 불확정성은 이런 '賢君'이 항시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 의'에 의해 그 지위를 누리는 정통성을 향유치 못하는 리더는 크건 작건, 빠르건 늦건 언젠가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 또 자신의 Régime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나아가서 경제학적으로도 '과잉보상'으로 치달게 되고, 그 결과 자원배분 등의 측면에서 왜곡효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은 물론이려니와 예를 들자면 '법의 지배'가 보장되지 않는 세계에서 즉 특허/저작권 등이 공정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세계에서 국민의 창의/고안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높아지고 참된 독창적,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드라이브가 걸리겠습니까.

신변보호체제, 치안체제, 군사체제 등의 면에서의 과잉보상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와 비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리더 교체'가 갖는 의미는 크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리더는 '민 의'가 떠나가면 민주주의의 정해진 룰에 따라 사임하면 그만입니다. 공화제, 의회민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민주주의 체제 하의 리더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차우세스크, 밀로세비치, 최근 들어서는 카다피 등 여러 이름들이 떠오릅니다만 그들에게 사임이 갖는 의미는 민주주의 하의 리더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폭동, 혁명, 처형, 재산몰수, 국외추방... 말하자면 '다모클레스의 검'이 걸려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내용도 각양각색이지만

일본과 한국은 공히 법의 지배가 뿌리를 내리고 성공리에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것은 1965년이며, 저는 그 해 4월에 외무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제 눈으로 직접 보아 왔습니다. 냉전 하의 국제정세로 인한 제약이 있다 보니 한국이 명실공히 한국에 걸맞는 국제적 입지를 확립한 것은 1990년의 소련과의 수교, 1991년의 유엔 가입, 1992년의 한중수교 무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후 오늘날까지 불과 20년 사이에 한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존재감과 공헌도는 그야말로 팔목할 만큼 증대되었습니다.

올해 3월의 동일본 대지진 후에 한국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일본 및 일본 국민들에 대한 우정과 이를 토대로 한 막대한 지원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속담을 실증하는 것이며, 일본은 이를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공히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또 한일 간에는 기본가치의 공유, '벨류 어라이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관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자국의 가치관과 민주주의 시스템에 확신을 갖고 있고, 각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최고이면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공조하면서 경제에만 치우치지 않는 거버넌스 면까지도 포함한 공정하고도 개방적인 국제적 틀을 한 발 한 발 꾸준히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힘을 합칠 것을 세계는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저는 일본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종종 자기문제, 자기들의 일에 골몰한 나머지 세계의 이목이 부단히 일본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치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 왔습니다. 원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문제는 재난대처와 에너지 정책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 국가존립의 기반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NPT체제 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고도의 기술을 축적했고 우수한 기술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IAEA의 사찰관으로 활약하는 일본인 기술자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본의 자산입니다. 가령 일본이 소위 ‘탈원전’을 지향한다면, 대체에너지 확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일본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렛대(leverage)는 무엇인가’까지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엔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며, 원전 보유국입니다. ‘탈원전’을 지향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신흥국을 포함하여 원전을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런 추세 하에서 원전이라는 옵션을 봉쇄하는 일본은 실효성 있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국제적으로 진전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국가안보를 위한 억지력의 유지 및 확보라는 명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원전문제를 검토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고려하는 것이 위정자의 책무인 것입니다.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제가 외무성에 입성했을 무렵부터 한 동안 일본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결눈질하면서 그저 ‘대세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일본은 남을 ‘보는’ 나라로부터 남의 ‘이목을 끄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을 향한 시선

은 당연히 호의적인 것만이 아니어서 냉철한 것도 있는가 하면, 호시탐탐이라고 형언해야 할 것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일본 그리고 일본 국민은 국제사회의 역사와 현실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리하고 명석한 상상력(imagination)을 함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우리가 바라는 형태로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상상력이 결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의지력’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좋은 싫든 일본도 한국도 민주주의의 ‘대국’입니다.

이에 자긍심을 갖고 그 위상에 걸 맞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함께 책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서도 한일 양국의 국력의 원천인 경제·재계인 여러분들의 활력이 느껴집니다. 오늘과 내일의 회의가 여러분의 활력을 반영하여 많은 결실을 거두고, 세계적 차원에서 중요한 한일관계를 지금까지도 지탱해 왔고 앞으로도 지탱해 나가실 재계총수 여러분들께서 체험과 시각을 더욱 진하게 공유할 수 있는 場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제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특별강연

조석래 단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조연설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특별강연으로서 한국측 정부관계자로부터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노사문제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특별강연은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국가지식재산전략 추진현황」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일 양국의 비 중 있는 경제인 여러분들이 모인 이 귀한 자리에 여러 중요한 부처들로부터 들으실 얘기가 많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특허청에 근무하는 저를 초대해 주신 것은, 그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업 활동에 있어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문제가 중요해 졌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받아들이고, 유용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미리 주최 측에서 요청해 주신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식재산전략 추진현황, 영업비밀 보호제도 현황,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식 재산전략 추진현황입니다.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기업의 가치에서 지식재산을 비롯한 무

형자산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무형자산의 비중이 32%였지만, 2005년에는 80%로 급증했습니다. 즉, 이러한 지식재산을 비롯한 무형자산을 잘 창출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을 둘러싼 삼성, 구글, 애플 등 글로벌기업 간의 특허전쟁에서 보듯이, 글로벌기업 간의 최종승부는 결국 지식재산에서 갈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차원은 물론이고 국가차원에서도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주요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2002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2008년에 PRO-IP 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보면, 양적으로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여 집니다.

특허출원건수가 세계에서 4위 수준이고, 경제규모와 인구규모에 비추어 본 출원건수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술무역수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순위도 32위에 머물고 있는 등 아직 질적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사실은, 개발연대 이후에 새로운 혁신기업이 나타나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MS나 애플, 퀄컴, 구글과 같이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無에서 출발해서 글로벌기업으로 커 가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타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혁신의 전초기

지적 관점에서 모든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로 엮어서 통일성 있는 국가지식재산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2009년에 산업계, 과학기술계, 시민사회단체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특허청이 주축이 되어서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에는 10대 전략과제와 44개의 세부과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정리가 되어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전략을 정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식재산정책협의회는 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기구를 보좌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것보다 조금 주니어급 전문가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구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총리실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지식재산협의회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 4월에 지식재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금년 7월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총 5장 본문 40조 부칙 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기념하여 지식재산 국제세미나를 대규모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을 국가 어젠다로 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일본 특허청의 이와이 요시유키 청장님, 그리고 일본의 지재전략본부의 곤도 겐지 사무차장님 등 일본 측 주요인사들도 참석

해서 일본의 경험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서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정식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첫째,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추동력과 상징성을 확보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조정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했고, 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계획과 정책의 실효적 집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관을 임명하도록 했고, 주요정책에 대한 점검과 관련 법령 제·개정시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해서 정부정책의 통일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 확보, 관할 집중 등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자본 육성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키 위한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의 인식제고 등 친지식재산 사회형성을 위한 기반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 규범의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개도국을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와 국력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위원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허청장과 9명의 지식재산 관련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원 18명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보면,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장 아래 2개국 4개과 총 2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제의 구성은 완료되었고, 지금부터는 실제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재권 소송 관할 집중 문제, 특허의 실효성 확보 문제, 그리고 그동안 상업계에서 논란이 되어 오던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요청하신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크게 일본의 영업비밀제도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 보유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하는데, 이러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비밀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1년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규정이 삽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이 규정을 강화하면서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이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침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민사적·형사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예방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영업비밀을 국내로 유출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내지 10배의 벌금, 외국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내지 10배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미수·음모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거의 일본의 영업비밀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라는 새로운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본 결과, 영업비밀을 보호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영업비밀이 그 시점에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원본 자체를 어떤 공공기관에 임치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회사 밖으로 가져감으로써 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꺼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은 영업비밀 원본은 기업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암호화해서 추출한 전자지문이라고 하는 Hash 값을 특허청에 등록하도록 하면, 여기에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 타임 스탬프를 찍어 어느 시점에서 그 Hash 값이 들어 왔는지를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영

영업비밀의 존재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때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원본으로부터 다시 한 번 Hash 값을 추출해서 특허청에 등록된 Hash 값과 대조한 다음, 일치하면 그 영업비밀이 그 시점에서 그 기업에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11월에 도입했는데, 현재 약 650건 정도가 등록이 되어서 기업체로부터의 반응은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공개 심리제도나 비밀유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PLT라는 특허법조약의 내용을 우리 특허법에 반영하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국내의 환경변화에 대한 법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소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허관심을 표해 주신 부분들은 외국어 특허출원사항입니다. PLT 내용을 보면, 제5조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언어는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법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면적인 언어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주요국들은 아직 PLT에 가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의 특허청의 경우 이미 모든 언어로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출원언어에 대해서 하위법령인 지식경제부령에 위임을 해 두고 있고, 상대국이 한국어 출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령을 개정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석래 단장 : 감사합니다. 특히 한일 간의 특허 출원문제에 있어 언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전문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혁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께서 한국 노사문제 안정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 『2011년도 정부의 노동정책 - 노사, 두 바퀴로 가는 내 일』

권혁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먼저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신 분들께 한국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받은 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노사관계, 관행,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노사관계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 잊으시더라도 딱 한 가지만 기억

해 주실 것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그 동안 국제사회에 비추어진 것은 굉장히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이 기업활동에서 상당히 애로점으로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노사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노사관계는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몇 가지 징표를 보면, 2008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집중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법에 어긋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투쟁지향적인 노조운동과 노사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노사가 나름대로 노사관계를 합리화시키면서 끌고 가는 그런 노력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는데 제도적 변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최근의 한국 노사관계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안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사분규 건수를 보면, 과거 한국의 노사분규는 굉장히 빈발했었는데, 최근에는 현장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대다수가 민주노총 소속의 사업장에서 분규가 일어나고 있고, 일본기업에서 일어나는 노사분규도 대부분이 민주노총 소속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출범한 것이 1995년인데 민주노총 출범 이후 지금이 가장 적은 분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1987년 말부터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이 가장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끌고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금년도는 이것보다도 약 3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노사분규로 인한 현장의 근로 손실일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지금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이 약 근로자 천명당 1년에 근로 손실일수가 약 34일 정도 됩니다. 한국은 작년에 30일로 OECD 평균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일본은 OECD 중에서도 최대수준입니다만, 그러나 일본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안정적인 기조로 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사분규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현장에서의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고민은 언론보도로 아시겠지만, 대형사업장에서의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요즈음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갈등을 최소화 할 것인가 저희 정책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앞으로 역점을 두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현장의 노사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도 근본적으로 최근 2년 동안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도입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복수제도, 노조에 있어서 사업장 단위의 복수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축이 앞으로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더욱 더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기존의 노조전임자들은 모두 회사가 주는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노조 스스로가 자신들의 조합비를 걷어서 주고 그 조합비로 활동을 하라는 취지이고 다만, 일부 노조간부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타임오프 즉, 근로시간 유급면제제도를 인정을 해 주는 제도가

며,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원칙은 노조전임자 급여는 반드시 노조가 부담토록 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타임오프를 인정한다는 제도입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활동을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업무들만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사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공동의 이익과 관련되는 활동은 근로시간 면제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면제한도는 뒤에서 보겠지만 법을 개정한 이후에 노사정으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공익대표들이 모여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의 인원규모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배되어 전임자가 돈을 회사로부터 받게 되면 사측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조에 대한 부당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조가 이 면제한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전임자 급여를 요구한다든가 전임자 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파업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는 파업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이 표는 지역규모별로 결정된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소정 근로시간 1년에 평균 2,000시간이 된다면 2,000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2,000시간을 한 명으로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 사업장의 근로자 규모가 약 300명이라고 할 경우 최대 4,000시간, 4,000시간 두 사람 정도까지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줍니다. 범위는 상당히 높여 놓고 있습니다. 기업규모가 낮을수록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조금 넓게 인정했습니다. 기업규모가 크면 너희들은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니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확대하라는 취지입니다. 투자기업들을 보면 대충 1,000명 미만의 기업이 많은데, 1,000명 미만 기업은 유급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를 1인당 약 2,00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나누어서 쓸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분할해서 쓸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00시간이면 세 사람이 가능한데, 이것을 여러 사람이 쪼갠 경우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3배수, 많을 경우에는 2배수 즉, 3명일 경우에는 6명까지는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 이후 현장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결과, 노조전임자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당초 제도가 의도했던 바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들을 쭉 점검해 본 결과, 전임자 수가 전체적으로 약 30%가 줄었는데, 300명 미만 사업장은 전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 6.4%로 많이 줄진 않았고, 중간범위인 1,000명 미만 사업장은 약 18% 정도, 그리고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전임자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사업장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임자 수가 235명인데, 비공식적으로는 30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자는 즉, 회사가 보수를 주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사람은 26명이고, 노조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별도의 유급전임자는 85명으로 전체적으로 합치더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LG전자 모두 2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리

고 이것은 점점 더 파급효과를 가져와 다른 기업에도 전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작년에 시행된 이후에 한국 정부는 모든 노동정책의 초점을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새로 도입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조사 차 만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제도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도입된 사업장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의한 곳이 99%가 넘습니다. 일부가 법을 위반해 초과로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이 약 0.6%정도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기존의 대립적인 사업장이고, 노조의 힘과 주장이 강해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전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본부가 함께 다니면서 순회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시면 상의를 해주시면 항상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와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집중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전임자 임금과는 다른 또 하나의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입니다. 이것은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조전임자 문제는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제도입니다.

조합원의 정서와 상관없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관계를 이어 가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복수노조제도가 옛날 그대로 정착이 되었는데, 한국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여러 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창구 단일화제도, 여러 노조가 반드시 사용자와 교섭할 경우에는 창구의 단일화, 공동대표의 제도적 강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 초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본과 달리 창구단일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노 간의 지나친 경쟁이나 갈등에 의해서 현장의 노사관계가 불안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단일화 제도의 핵심은 여러 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을 때, 노조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자주적으로 단일화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자유롭게 합의해서 즉, 지분을 대표가 연합해 몰아주어 과반수를 넘겨도 상관없고, 어쨌든 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교섭대표가 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고 합의도 안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대표단을 꾸릴 때는 소수노조인 10% 미만의 노조는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통해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교섭이 결렬되어 있을 때는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기고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복수노조제도가 현장에서 왜 전임자 문제와 함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이것이 노사관계를 상당히 많이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가장 관심 있는 이슈 즉, 고용문제나 생산성 등 노사가 공동발전 할 수 있는 현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수노조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전임자 문제와 함께 저희가 각종 매뉴얼을 보급하거나 혹은, 지방노동 관서별로 노사정의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신생노조가 생기는 경우, 안내도 해 주고 회사 측과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창구를 많이 활용하면 노사문제의 애로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만약 노사관계나 노사갈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라는 이슈입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현 정부가 과거의 정부와 다른 점은, 첫째가 법치주의입니다. 법을 위배하지 말고,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노사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 의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노사가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별적인 노사갈등 사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와 같이 협조해서 풀어 나가면 됩니다. 특히,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분규가 큰 사안 즉,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본부를 통해서 상의를 하면 저희도 관계부처와 같이 신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 현장에서의 노사관계가 조금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노사가 가장 감정이 대립되고 갈등이 치열해 진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면, 사업장을 점거한

다든가, 불법 피켓팅을 한다든가, 직장폐쇄를 한다든가 하는 노사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2008년 이후 신정부가 들어서서 아주 엄정하게 조치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노사관계의 문화나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조치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래 단장 : 감사합니다. 두 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 다만, 질문을 해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는지요?

좋은 기회이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을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4. 보고·제언

조석래 단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특별강연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 চে어맨이신 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그럼 일본 측 চে어맨이신 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님으로부터 올해의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결과보고와 그리고 일본 정부를 향한 제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소 사장님은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제6회 이후, 7년 동안 일본 측의 চে어맨을 맡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소 사장님은 시멘트 사업 이외에도 의료, 교육분야 등 큐슈 지역에서 70개 이상의 그룹기업을 경영하

고 계셔서 매우 폭넓게 활약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학생 때에는 럭비선수로서도 활약하셨고 전대학일본선수권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는 운동선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1) 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

『10 제언&답변, 제1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결과보고, 11 제언』

麻生 泰(ASO Yutaka)
아소라파즈시멘트(株)
社長



방금 소개받은 아소라파즈시멘트의 아소 유타카입니다. 먼저 동일본 대지진 피해에 대하여 한국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신산업무역회의의 개요 및 일본측 제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산업무역회의는 금년 2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일본 측이 30명, 한국 측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신 오영호 체어맨 이하 41명 등 합계 7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회의는 세션 1, 2, 3으로 나뉘어져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션 1에서는 인재교류전문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 한국유학생의 수용, 취직페어 개최, 한일산학연계의 정보공유화에 대한 대응
- 자격상호인증에 대해서는 한국측에서 환경, 에너지 기술자에 관한 자격 선정 조사 실시

이어서 부품소재협력강화에 대하여

- 부품상호인증 및 부품소재통계분류의

체계화에 대해서는 아시아인증협의 회의와 통계분류의 협의기관 설정의 場을 통하여 민간이 주체가 된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션 2에서는 고급인재의 교류와 자격 상호인증에 대하여

한국 청년고급인재의 일본기업 고용추진에 있어서는

- 일본 측의 수용체제·환경정비, 제도개선
- 일본유학·취직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사이트·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운영
- 자격상호인증 추진에 있어서는
- 환경·에너지 이외의 5분야에 관한 자격 상호인증 외부조사 및 한국정부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자의 완화조치
- 행정사무의 ICT화 그리고 양국이 각자 경쟁력 있는 ICT기술 조합의 추진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요양보호분야에 있어서는

사건입니다만 한일 간에 자격제도를 공유함으로써 일단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령자 대응에 필요한 요양보호사자격제도의 창설입니다. 다소의 조정은 필요합니다만 양국의 자격이 아시아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격의 동시인증은 장래의 직장을 공유화하는 길로 저절로 근접할 수 있기에 양국 국민의 이해, 배려를 얻기 쉬우며 다른 자격의 추진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내용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세션 3에서는 한일 FTA/EPA의 조기체결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또한 향후 한일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한일기업 간의 연계, 협동에 의한 글로벌 전개를 정부가 제도 금융 등을 통해 지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측 제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양국정부에 제출한

제안은 2년분 합계 28건이었습니다.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1 자료에 정리해 놓았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로부터는 무역·투자, 인제 교류의 광범위에 걸친 제안으로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할 경우, 법 개정 등이 필요하는 등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에 한일 FTA의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고 싶다는 회신이 있었고 이를 양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양국 정부에 FTA 교섭의 조기재개, 체결을 강력히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제출예정인 인제 교류 제안(안)입니다만 양국 합계 7건으로, 일본 측의 4건에 대해서는 부록 1 자료에 제안(안)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세션 2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양국의 체어맨은 제안의 제출은 골(Goal)이 아니라 실현을 향한 액션플랜의 지속적인 실천이라는 점을 확인·합의하였습니다. FTA가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민간주체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산업무역회의 종료 후에 양국 체어맨·코디네이터가 참가한 톱(TOP) 회의가 개최되어 한일 경제인회의를 향한 제안, 정부에 대한 제안 제출요령, 신산업무역회의의 방향성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방향성 및 한국 정부에 대한 제안(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한국 측 오영호 체어맨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신산업무역회의와 제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교생교류캠프의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영상시간 2~3분 정도)

그럼 조금 전 사사키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인도 고교생캠프를 포함한 청소년교류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일본 외무성의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 예산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11년까지의 한시적인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 우리들로서는 차세대를 짊어질 청소년교류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한일경제협회의 협력하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일 양국 정부에서도 청소년교류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지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역사가 상호의 상처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이러한 양국의 청소년들이 어울려 미래를 위한 공통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교류하고 서로 도와주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격의 공유화, 공동인증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 한일공동의 제3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이해, 공유화된 목표를 통하여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큐슈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맨입니다만, 큐슈 및 호쿠리쿠 지역과 한국 간의 산업교류, 상호협력이 더욱 더 추진·확대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석래 단장 : 감사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공동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국측 체어맨이신 오영호 한국 무역협회 부회장님께서 대한투자 활성화와 부품소재 산업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측의 회답결과와 향후 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제안·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오영호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10 제언&답변, 11 제언, 회의 중기운영방안 보고』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오영호입니다.

제1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는 앞서 일본 측의 아소 체어맨께서 자세히 보고하신 만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6월 9일자로 양국 정상 및 관련부처 장관에게 제출한 ‘한일경제인회의 제언요망서’ 중 한국 정부의 답변과 이번에 새롭게 제안할 한국 측 제언내용, 2012년도 회의에서 다룰 테마, 그리고 이 회의의 중기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 제언요망서에 대한 우리 정부 답변>

‘한일경제인회의 제언요망서’의 28건 내용은 부록 1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한국 정부에 제안한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9건과 ‘한일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5건, ‘한일 부품소재산업 협력강화를 위한 제언’ 4건 등 총 18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하고, 어려운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차후에 하나씩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의 상세 답변내용은 부록 1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요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9건>

첫째, 일본 측이 한국 정부에 제안한 ‘대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9건 중 ‘노조 전임자 급여의 회사부담 폐지’ 등 4건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면 ‘특허출원제도에 있어 영어출원 인정 제안’은 장기 검토가 필요하고, ‘법정 퇴직금제도 개혁’, ‘공업단지 등에서의 경제특구 개념과 규제 완화 조치’ 등 4건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현 상황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한일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5건>

둘째, ‘한일 인재교류 활성화와 관련한 제언’ 5건 중 ‘중상급 IT기술’ 및 ‘환경기술의 자격 상호인증 추진’ 등은 수용이 가능하되, ‘한국 청년 고급 인재의 일본기업 고용 추진을 위한 한일공통의 시책’은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요양분야에서 ‘요양인재 양성기관 설치 및 신자격의 상호인증’은 형평성 문제와 서비스 수준 차이 등으로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여행에서 ‘연수 내실화 및 자격 상호인증 추진’은 일본의 자격시험제도 재검토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계속 검토 중입니다.

<한일 부품소재산업 협력강화를 위한 제언 : 4건>

셋째, 한일 부품소재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4건의 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한국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한일 부품소재 클러스터 간 연계 협력 추진’에 관해서입니다. 그간 양국 클러스터는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관 및 기업 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해와 공유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품 공용화 및 상호인증 확대 촉진’에

대해서는 현재 양자 표준화 정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KS·JIS 표준 및 인증 표준별 DB 구축을 위해서는 한일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 유사한 인증 표준제품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A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및 '부품소재 통계분류 체계화를 위한 공동연구 실시'는 양국 관계기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장기검토 과제로 다루어 나가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방금 아소 চে어맨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한일경제인회의의 제언'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한일 FTA 협상 시 협의의 안전'으로 다루자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한일 FTA 협상이 언제 재개될 지 불투명하므로 현 단계에서 풀 수 있는 제언 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1년도 한국 제언>

다음은 2011년도 제언사항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내일 오후에 열리는 제2세션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남일 국제인력본부장이 '한일 인재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테마로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한국 청년 고급인재를 위한 별도의 VISA 개발

일본기업의 한국 고급 청년인재 고용 추진과 관련, 일본 측 시책 중 하나인 취업기회 확대와 연계해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등에 대한 별도의 비자(VISA)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② 한일 자격 상호인증 협의분야 추가 선정

두 번째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상호인증을 위한 한일 자격체계 및 인력수급

동향 분석'에 대한 외부조사를 토대로 한일 자격 상호인증 협의 분야에 에너지를 새로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③ 한일 자격상호인증 Working Group 구성 및 운영

셋째, 한·일 우수인재 간 원활한 교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자격 시행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격 상호인증 워킹 그룹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2년도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테마 선정>

2012년도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테마선정과 관련, 실질적 문제해결과 성과도출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양측 테마의 단일화가 중요한 만큼 이번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다음 4가지 테마 즉,

- ① 인재교류(전 제조업 등 산업인재 교류)
- ②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생산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
- ③ 신성장 산업분야인 태양광 등 신에너지 분야 R&D 네트워크에서의 한일협력
- ④ 제3국 공동진출(플랜트, 자원개발)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중기 운영방안>

마지막으로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중기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지난 1999년 무역투자, 기계공업, 산업일반 등 3개위원회를 통합, 신설한 한일경제인회의 산하의 유일한 전문위원회로, 그간 산업·무역·투자 등 한일 간 공통과제를 양국정부와 관계기관에 정책제언 형태로 전달하는 문제해결형 실천 회의체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신속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팔로업이 필요한데도 이 부분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제언이 정부 간 협의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고, 그 결과가 피드백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내부분제입니다만, 70여명에 달하는 참석인원에 비해 과제발굴과 토론이 미흡하고, 과거에 비해 참석자 간 유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과제발굴과 토론,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를 위하여 회원구성을 기업CEO 중심의 고정그룹과 테마에 따라 바뀌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하되, 두 그룹 모두 소수정예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현직의 참석비중을 높이는 일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양국 참석자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회의개최 시 친목모임도 병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중기 운영방향’이 하루 빨리 실천되어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양국 경제협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리더십을 발휘하여 양국 정부와 원활하게 협의해 주시고, 참석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석래 단장 : 감사합니다. 두 분 চে어맨님의 보고와 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발표에 대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고석영 E&Awell Co.Ltd 회장 : 저는 오랫동안 일본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인으로 있었고, 또 하나는 한일회의를 추진할 때에 제가 통역도 했습니다. 지금 공동의 장으로 있는 조석래 의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회

의를 할 때에 사전에 자료를 보내주셔야만 여러 의견이 통하고 여기에 대한 질문도 준비할 텐데, 여기 와서 얘기를 듣고 하거나 조금 문제가 있어 조금 달리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도 좋은데 하나의 과제는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이런 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자료를 보면 질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를 할 때는 높은 분(임원, 간부)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도 참석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도 일본도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지금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일본에 가서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회의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회의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분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교류와 관련해서 이런 정보를 사전에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높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해 주셔도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질문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내용은 사전에 저희에게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그냥 단순히 회의를 개최하고 듣고 서로 좋게 끝나는 것 뿐 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 같은 것이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일본 측에서도 많이 와 주셨는데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회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걸치례식의 회의가 아니라... 지금 한국과 일본의 실질적인 심각한 문제인 저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

각합니다. 경제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더욱 더 효과적인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문제 하나를 과제로 정해서 이끌어 가지 않으면 양국 정부가 좀처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하나 정도 선정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실무자와 이야기 하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노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변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석래 단장 :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이 안계시는지요?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和地 孝(WACHI TAKASHI) 테루모(주) 명예회장 : 질문이 아니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일고교생교류캠프에 대한 감사입니다. 금년에 제 손자가 이 캠프에 참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고 밤을 새면서 논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선정이 되어 캠프에 참가하여 한국에서의 캠프활동을 마치고 귀국 후 손자가 올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이 기간 동안에 평생의 친구를 사귀었다. 평생을 같이할 한국 친구를 사귀었다고... 자기는 만약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매년 한국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고 싶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이라든지 또는 친구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아주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소 체어맨의 말씀에 따르면, 정부지원도 중단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정말 효과가 크고 한일 간의 미래를 내다보는데 있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이 고교생교류캠프가 계속해서 이어 갔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조석래 단장 : 잘못해서 야단을 맞은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큰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제 저희 단장단들이 한국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차관님을 만나서 이 예산을 우리 한국정부에서 줄 수 있도록 사사키 회장님과 같이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다면, 오늘 보고·제언드린 신산업무역회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논의될 의제와 관련하여 세션2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사사키 회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럼 사사키 회장님도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은 원안대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0년 양 협회의 활동에 대한 일반경과 보고를 이종윤 전무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경과보고(협회활동)

이중윤

(사)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이중윤입니다. 한일 양 협회를 대표해서 양국 경제협회가 실시한 경제협력사업 등에 대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8페이지에 걸친 일반경과보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에 대표단 여러분께서 따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경과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반경과보고 전문>

I. 한일·일한경제협회 공동사업

1.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0년 4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256명의 양국 경제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국 오카야마시(岡山市)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에 제언서를 제출하기로 한 공동성명에 의거하여 '한일·일한 경제인회의 제언요망서'를 한일 양국 경제협회장 연명(連名)으로 양국 정상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한일 간 중요 공통과제는 한일 간의 무역·투자 활성화, 한일 인재교류 활성화,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강화 등 28건입니다.

이들 과제는 양국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투자 및 인재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테마로, 양국 간 경제협력과 인

재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0. 4. 15(목)~16(금), 일본 오카야마(岡山)
- 목적 : 한일 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며, 양국 간의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등 경제교류의 촉진을 도모
- 참가자 : 256명
 - 한국 측 : 조석래(趙錫來) 단장 등 110명
 - 일본 측 :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단장 등 146명
- 내용 :
 - 제1세션 : 동아시아 경제연대(공동체)와 한일 관계
 - 제2세션 : 금후의 환경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와 전망

2. 제1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본 사업에 대해서는, 양국 체어맨으로부터 앞서 별도 보고·제안 드린 바와 같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1. 2. 25(금), 서울 COEX
- 목적 : 한일 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한 실천적 문제 해결형 회의로서,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 및 실현
- 참가자 : 67명
 - 한국 측 : 오영호(吳永鎬) 체어맨(한국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37명
 - 일본 측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체어맨(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 등 30명
- 내용 :
 - 제1세션 : 한일경제인회의 제언요망서 진척상황 및 과제(부품소재산업 협력 및 인재교류 전문

위원회 활동 진척상황)

- 제2세션 : 한일 인제교류(한국 청년인재의 일본정착, 자격 상호인증)
- 종합토론 : 한일 FTA/EPA, 한일 경제협력방안 등

3. 한일 청소년교류사업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의 기초로서 젊은 세대의 인제교류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박 5일 동안의 청소년 경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경을 넘어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이 진정한 우정을 쌓음으로써, 향후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1)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① 제15회(2010년 8월, 서울) 참가자 : 74개교 99명(韓 49명, 日 50명)
- ② 제16회(2011년 2월, 서울) 참가자 : 77개교 100명(韓 50명, 日 50명)
- ③ 과거 16회까지의 총 참가자 수 : 1,482명(韓 750명, 日 732명)
- ④ 내 용 : 친구만들기, 도전 골든벨, 비즈니스 기획(아이템 시장조사, 홍보물 제작), 사업발표회, 문화체험 등

(2) 한일학생미래회의

- ① 제5회 한일학생미래회의(2010년 8월, 일본 교토) 참가자 : 37명(韓 17명, 日 20명)
- ② 과거 5회까지의 총 참가자 수 : 155명(韓 81명, 日 74명)
- 한일고교생캠프 기 참가 학생들이 캠프기간 동안 양국 고교생 사이에 쌓인 우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2006년부터 자발적으로 OB회와 한일학생미래회의를 결성 및 운영하고 있음. 본 회의에서는 스터디 그룹, 토론

회 등 보다 발전된 형태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해 오고 있음.

- (3) 한일 청소년교류사업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일본정부의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대교류계획」의 일환으로 외무성의 예산을 받아 보다 충실한 사업내용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이후의 한일 고교생교류캠프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힘쓰고 있으며, 한일경제협회의 대정부 제언 사항에 포함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II. 한일경제협회 단독 사업

다음은 한일경제협회 단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경제협력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개의 지역간 경제교류 회의를 통해 관련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산업기술 협력, 비즈니스 매칭, 전시회 상호 파견, 기술자 연수, 산학관 제휴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제1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0. 8. 3(화)~6(금), 일본 토야마시(富山市)
- 목적 : 한국 동해안 지역과 일본 호쿠리쿠(北陸)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지역별·업종별로 서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상호 보완적 경제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의 확대를 도모

※ 한국측 : 동해안지역 2광역시 2도
(대구·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 일본측 : 호쿠리쿠 3현
(토야마[富山]현, 이시카와[石川]현,
후쿠이[福井]현)

- 참가자 :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관계자 등 208명
- 2000년 토야마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1년간 총 1,916명 참가
(韓 781명, 日 1,135명)
- 내용 : 한일 산업교류 세미나(산업정책, 경제특구 소개), 의약업 전문 분과회, 토야마현 모노즈쿠리 종합전시회, 산업 문화시설 시찰 (의약품 제조회사) 등

(2) 제17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0. 10. 12(화)~15(금), 일본 키타큐슈시(北九州市)
- 목적 : 한국 남부지역과 일본 큐슈(九州)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을 확대
- ※ 한국측 : 남부지역 2광역시 4도
(부산·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 ※ 일본측 : 큐슈 7현 2정령시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구마모토 [熊本], 오이타[大分],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児島]의 7縣 및 후쿠오카[福岡], 키타큐슈[北九州]의 2政令市)
- 참가자 :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관계자 등 80명
- 1993년 키타큐슈시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7년간 총 1,996명 참가
(韓 820명, 日 1,176명)
- 내용 : 경제교류회의(중소기업 간 경제교류 확대, 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지역 간 경제교류의 적극적 지원 등)

(3) 제1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0. 10. 12(화)~15(금), 일본 키타큐슈시(北九州市)
- 목적 : 한중일 환황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환황해권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의 기반을 구축
- ※ 한국측 : 수도·충청권 등 3광역시 3도
(인천·대전·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 일본측 : 큐슈 7현 2정령시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구마모토[熊本], 오이타[大分],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児島]의 7縣 및 후쿠오카[福岡], 키타큐슈[北九州]의 2政令市)
- ※ 중국측 : 3시 4성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市], 라오닝[遼寧]·허베이[河北]·산둥[山東]·장쑤[江蘇]省)
- 참가자 : 3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관계자 등 712명
- 2001년 후쿠오카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총 3,734명 참가
(韓 926명, 日 1,491명, 中 1,317명)
- 내용 : 경제교류회의, 산학관 연계 대학총장포럼,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과학기술포럼, 항만물류경제 포럼, 환경비즈니스교류회(상담회), 에코 테크노 2010 전시회, 산업시찰(에코타운) 등

2.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회원에게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서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회원 대상 기관지의 발행

- ① 한일경제협회 소식지 발행(2회)

- 협회 사업안내 및 실적, 회원 동정, 일본의 뉴스, 기획연재, 한일 통계 등
- ② 주간일본동향(Japan Weekly Digest) 제공(매주)
 - 금주의 이슈, 일본 경제계 소식, 기업 동향,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등
- ③ 일본지식리포트 제공(수시)
 - 경제통상, 산업기술, 비즈니스, 정치외교, 사회문화
- ④ 조사 및 연구보고서 제공(부정기)
 - 협회 사업 개최결과 보고서 등

(2) 회원사 간담회 개최(2회)

회원들의 일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저명강사를 초청하여 강연과 의견교환을 실시

- ① 제4회 회원사 간담회(2010년 6월 22일 /서울)
 - 일본의 상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洪夏祥 작가 겸 중앙대 초빙교수)
 - 최근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전략에 대한 평가(金圭判 KIEP 일본팀 부연구위원)
- ② 제5회 회원사 간담회(2011년 5월 27일 /서울)
 - 겐보다 속이 더 두려운 일본의 산업경쟁력(李昌烈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3. 한일 친선교류 활동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증진·경제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회장단 간담회 행사를 실시(주한일본대사 주최 만찬간담회 2회, 주한일본대사 초청 오찬간담회 2회) 하였습니다.

4. 일본 지진피해 돕기 성금 모금 및 대한적십자사 기탁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관

련하여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작은 정성이나마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회원사 51개사에서 보내준 성금 366,550,00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여 일본적십자사로 전달하였습니다.

III. 일한경제협회 단독 사업

1. 일한경제심포지엄

한일의 경제교류를 비롯한 양국의 한층 더 긴밀한 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일한경제협회 50주년 기념 「제4회 일한경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 15일 (수) / 일본 경단련 회관
- (2) 주최 : (사)일한경제협회, (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 (3) 테마 : ‘한일 간의 경제연계 및 지구환경 협력의 가일층의 진화를 위하여’
- (4) 세션별 테마·강사
 - ① 제1세션 「한일 연계의 진화로서의 FTA /EPA」
 - 우라타 슈지로(浦田秀次郎) 와세다대학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 박태호(朴泰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② 제2세션 「한일 지구환경 대처와 한국기업의 사업전략」
 - 이케다 미치오(池田道雄) JX닛코닛세키에너지(株) 취체역상무집행임원
 - 이지평(李地平)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5) 한일 양국 경제단체, 기업, 일반인 등 약 200명(한국 약 20명) 참가

2. 조사·홍보 활동

회원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로서 이하

와 같이 실시. 향후, 더욱 확충 예정

(1) 회원 대상 기관지의 발행

① 협회보(월간)

② 한일경제협회통신(주보)

③ JKE 리포트(부정기)

(2) 회원 간담회 개최 : 일한비즈니스연구회

→ 연 8회 개최

회원들이 평상시 접할 기회가 적은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과 의견교환

(3) 협회 홈페이지의 충실화

협회의 홍보수단으로서 홈페이지를 충실화하여 접속건수가 증가

조석래 단장 : 그러면 이상으로 신산업무역회의와 일반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키회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 조석래 의장님, 사사키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두 분 단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후의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6시 40분부터 한일 양국 경제협회와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리셉션이 개최됩니다. 옆 회의장을 합쳐서 리셉션장을 만들 예정이며, 리셉션을 준비하는 동안에 환담을 나누실 수 있도록 입구 로비에 칵테일 바를 준비했습니다. 환담을 나누시면서 잠시 대기하셨다가 안내에 따라 입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6시 40분에 리셉션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 제 1 세션

테마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재구축과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방향

사회 : 【김 탁 (사)한일경제협회 부장, 이하 동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이번 제 43회 한일경제인회의의 2일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진행을 맡게 된 한일경제협회 사무국 김 탁 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리시버는 채널 1이 한국어, 채널 2가 일본어가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갖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모드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재구축과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제1세션의 좌장과 발표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세션의 좌장을 맡아 주실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태 원장님께서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과 OECD대표부

대사를 역임하셨으며, 2008년부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시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시기 위해 참가해 주신 한일 양측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회자인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소개)

한국 측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창수 삼성물산 부사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일본 측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마리 미츠오 하쿠호도 상무집행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히라노 카즈미 JETRO지역연구센터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야마다 신조 타이요전기 사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각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한 분당 20분입니다. 시간이 짧아 죄송합니다만, 시간엄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진행을 이경태 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경태 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1) 좌장 인사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일경제인회의의 중요한 토론에서 사회를 맡게 된 데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도 내리고 안개도 조금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도 안개가 많이 끼어 있고, 앞으로 안개가 걷힐 지 또는 더 짙게 깔지 알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독일 의회에서 유럽 금융안정기금을 더 증액하는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제 기대와 희망으로는 유럽의회가 찬성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오늘 독일 의회에서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재정위기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하기에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유럽 각국이 어떻게 재원을 분담을 할 것인지, 또 그리스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협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더블딥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입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입장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세금을 더 걷고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더 늘리자고 하고 있고, 공화당은 세금은 절대 더 걷을 수 없다, 그리고 재정지출도 오히려 깎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념도 다르고 또 내년 선거를 앞둔 선거전략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계금융이 불안한 상태에서, 여

기 모이신 분들이 주로 사업을 하시는 실물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 실물경제가 잘 버티어 주어야만 세계경제가 더 큰 어려움으로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산업이 강한 국가입니다. 산업의 기반이 튼튼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기업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확대해 왔고 협력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의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해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안정성도 중요하다는 것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깊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다섯 분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측에서 두 분이 나와 계시고, 일본 측에서 3분이 나와 계시는데 먼저 한국산업연구원의 송병준 원장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2) 한국측 발표

『일본 대지진 이후의 한일 산업협력의 전개방향』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산업연구원의 송병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한 자리에서 제가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일본 대지진 이후의 한일 산업협력의 전개방향입니다. 순서는 최근 일



본 지진 이후의 산업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한일무역의 변화의 특징, 그리고 투자실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마지막으로 양국 간의 산업협력 확대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지진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일본의 민첩한 행동에 의해서 단기적인 충격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만,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약간의 여진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지진 이전의 상태로 거의 회복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초 예상한 것 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었다는 것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진에 따른 환경변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지진 때문만은 아니지만, 엔화강세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해서도 일본기업은 잘 적응했고, 서플라이 체인 파괴나 심지어 전력 부족이라는 문제까지도 일본기업이나 국민이 화합해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대일부품소재 의존도는 무척 높습니다. 부품소재의 비중은 59.2% 정도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또 안타까운 것은 무역적자에서 부품소재 부분의 적자비중이 67%를 넘는 높은 적자는 지난 20년간 늘 지속되어 왔습니다. 부품소재산업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을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수입비중이나 수출비중 공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이나 수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지진피해 또는 그 파급효과에 의

해서 2/4분기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적자도 조금 줄어들고 수출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표에 나타나 있듯이 증가율에 있어서 대일수출은 크게 확대되고 있고, 대일수입은 증가율이 다소 줄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수출 급증품목은 주로 광물성 연료나 금속광물 분야입니다. 수입 급증품목으로는 석유화학이나 정밀화학, 산업기계 등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로 보여 집니다.

다음으로 양국 간의 투자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전체 국내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약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늘어났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사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레이가 3,000억원 가까운 투자를하기로 했고, 특히 탄소섬유 분야는 앞으로 새로이 유망시 되는 부품소재 분야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보잉787 같은 경우 대부분 탄소섬유를 많이 활용해서 기체를 아주 가볍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자신도 작년에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을 때 도레이 공장을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도쿄일렉트론이나 소프트뱅크, 스미토모화학, 덴소와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로 최근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투자는 지진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훨씬 이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던 것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사히 글라스도 작년 12월에 구미에서 약 1억 3,000만 달러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투자의 대부분이 부품소재분야입니다.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이 첨단소재를 많이 사

용하는 대규모 수요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부품 수요에 있어 대기업으로서의 위치가 굉장히 커 나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늘리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사업실적도 대부분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일본기업의 투자동기는 내수시장 진출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동기입니다. 다음으로 저렴한 단순노동력 이용, 그리고 중국 같은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대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대일투자는 사실 규모면에 있어서는 미미합니다. 신고 기준으로 2010년 4억 달러로 나타나 있고, 이는 전체 해외투자의 1%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상당부분은 골프장 등 비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은 약 10.6%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양국의 산업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협력의 확대방향으로서 첫째, 수직적 협력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호 인적교류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일부 IT업계에서 한국의 젊은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일 간의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3D기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3K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젊은층들이 제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인데, 아마도 한국보다 일본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일본 젊은 인력들이 해외진출 등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비해 한국 젊은이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소위 전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지 않은가 생각합

니다. 그리고 현지 언어구사능력의 측면에서도 한국 인력이 비교적 일본하고 협력하는 데 좋은 하나의 리소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일투자는 아직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투자유치만 강조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특히 부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대일투자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국 투자의 대부분이 소위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라고 본다면, M&A 또는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 등과 같은 것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여건이나 인식도 조금 새롭게 해서 M&A도 상호 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표준제정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제의를 서로 많이 해 왔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국 패키지형 진출에 서로가 협력함으로써 상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술력에 있어서는 일본이 훨씬 앞서 있고, 또 한국이 아직도 받아들이야 하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전략면에 있어서는 지난 10년간 상당히 발전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3국 진출에 있어서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전략이나 글로벌 마케팅 능력과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이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부품소재들을 중심으로 이번의 지진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고, 서로 간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완적으로 잘 구축해서 위기 시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기업과의 소통 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늘 논의되어 왔지만, 정보교류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일본의 대한투자를 촉진하는 요인들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한EU FTA발효와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진에 따른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 또는 원전문제, 그리고 우리 지자체의 일본기업 유치 노력이나 엔화강세, 그리고 한국의 대형 수요기업들,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인력이나 산업클러스트 등과 같은 것들은 일본의 대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경쟁구도 측면에 있어서 중국이나 대만 등이 강력한 투자대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지나친 어떤 감정적인 경쟁의식 같은 것 등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복핵을 포함한 안보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도 일본기업들이 가장 크게 의식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과거사 문제도 여전히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시에 비즈니스를 잘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의 공동수립을 통해서 부품소재나 자본재의 안정적인 조달과 구축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일본의 지진에 따른 주요산업별 영향과 기회적인 측면을 조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본 측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에 나온 측면에 있어서 이번 지진사태가 한일산업협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변화 중의 하나는, 원전기피에 따라 LNG선 같은 것

들의 발주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국 조선업계의 LNG선 수주의 상당부분은 그와 같은 반사이익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수평적 분업의 여지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많이 형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전자부품, 조선기자재 등에 있어서 특히,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수평분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성장동력 부문에 있어 양국 간의 관심사가 공통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녹색산업이나 융합 산업 분야는 많이 중복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 특히, 중국의 신성장동력의 산업육성전략을 의식한다면,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양국 간의 산업분업 구도가 조금 형성되는 것이 신성장동력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의 여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다는 생각입니다. 양국 신성장동력 분야의 업종들을 보면, 중복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활성화와 같은 기존에 해 오던 협력 스킴을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오고 있지만, 특히 금년은 새로운 모델팀이 주어진 해입니다. 블랙스완 효과와 같은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 이번 지진사태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경제시스템 전반적으로 상호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료설명은 이만 마무리 하고, 제가 느꼈던 한두 가지를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일산업협력에 있어 특히 금년의 이 한일경제인회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번 지진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난 2, 3년간 한일 간의 산업협력에 대한 양국의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진정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인식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 2008년 9월 경제위기 극복의 과정과 최근의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성공사례와 같은 것들이 일본이 한국을 다시 재평가하는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기업들의 마케팅 능력이나 기술품질력에 대해서, 과거의 인식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일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지난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좀 지연되고 또 정부 리더십의 문제, 일본 젊은이들의 전투력 등을 평가해 볼 때, 일본이 한국과의 산업협력에 대한 적극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중국의 영향력과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두 나라 간의 협력이 앞으로 더 촉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금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에 일본인들이 보여준 초인적인 질서의식과 신속한 산업피해 복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은 물론 한국 국민들이 모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일본도 어느 정도는 잊지 않으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양국 간의 우정도 그런 해가 아닌 가 싶습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가 양국 간의 산업과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송병준 원장님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투자, 산업협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의 토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제약 때문에 제가 다 요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발표를 듣고 나서 저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이제 서로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서로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협력을 수평적이고 상호 호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가 와 닿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일본 측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하쿠호도의 도마리 미츠오 상무집행 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 일본측 발표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서』

泊 三夫
(TOMARI Mitsuo)
(주)하쿠호도
상무집행임원



하쿠호도의 도마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1일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서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주제와 약간 다른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영상을 약 3분정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 영상 상영 -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미야기현 오가반도를 진원으로 한 지진은, 그 크기가 일본관측 사상 처음인 진도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지진해일의 높이가 최고 40.5미터까지 될 정도였습니다.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피해 수치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일, 외출 갔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도쿄의 지면이 파도치는 것처럼 출렁거리고 39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일본인은, 국토의 대부분이 지진과 태풍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그 재해로부터 재생하는 것이 저희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저는 이와테에서 미야기까지의 피해를 해안선을 따라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 재난에서 피해지의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과연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제가 직접 눈과 귀로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황당하고 참혹한 풍경에 마음이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이 때, 저희는 약간 망연자실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로부터 구명, 구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진 바로 다음날부터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구조전 1마리와 구조대가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모금 570억원, 구조물자는 생수 24만병, 즉석밥 약 200킬로그램 이상 등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민간기업으로부터도, 일반시민 여러분으로부터도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의 여러분에게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일본국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신대지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여러번 반복되었던 ‘재해의 역사’와 ‘복구의 발자취’를 겪었던 것처럼, 이 대지진으로부터 다시 일어서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서로가 도우면서 구축해 가자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믿고 또 저희는 여러 가지 복구활동의 일환으로서 이와테현의 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이와테현의 ‘오키라이’ 라는 작은 어항입니다. 이곳은 세계 3대 어장을 갖고 있고, 매우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진과 해일로 순식간에 많은 존엄한 생명과 사람들의 생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기와 수도, 가스가 복구되었지만, 예전의 생활은 돌아오지 않고, 할 일은 없고,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의욕을 갖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터전을 잃은 분들이 대피소에서 가설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아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돕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어망을 이용해 ‘소원팔찌’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자신들의 수입을 벌고, 또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항구의 여성분들이 손에 익숙한 어망을 가지고 팔찌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복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이 있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살아남겠다는 복구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활동은 여러 해안마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여성이 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대금은 1,100엔입니다. 이 중 579엔이 만든 분들의 수익이 됩니다. 나머지는 피해지역에 계신 분들, 또는 피해지역의 기업에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분들에게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인간에 있어 보편적인 일하는 즐거움과 인간을 위해,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마음은 그 어느 시대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웃 나라인 한국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을 헤쳐 오고, 힘차게 살아 왔고, 풍요로운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는,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가의 틀, 국경을 넘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많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이 일본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아시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인 효과와 효율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지속해 갈 것인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아소 체어맨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고교생교류캠프 같은 사업들은 아주 훌륭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 한일·일한 교류축제, 2009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올해로 3회째가 됩니다.

양국의 무용, 악기연주, 퍼포먼스, 물산

전 등 많은 이벤트를 펼치고 있고, 올해 도쿄 롯본기의 하늘을 뜨거운 우정으로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화교류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진복구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진재해지역인 도오후쿠(동북)가 낳은 위대한 시인인 미야자와 겐지의 다음 말을 마음에 담으면서 활동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슬픔은 힘으로, 욕망은 사랑으로, 분노는 지혜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저도 화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이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또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도마리 미츠오 선생님하고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일 간의 산업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의 바탕에는 일본과 한국 국민들 간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감정이 통하는 바탕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삼성물산의 김창수 부사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4) 한국측 발표

『글로벌 해외 프로젝트의 전개와 한일협력』

김창수
삼성물산 부사장
(기계플랜트본부)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의 김창수입니다. 조금 전 말씀 정말 숙연해지는 느낌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영자

들이 모이신 전통 있는 회의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윈윈하는 협력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프로젝트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플랜트 시장동향 및 전망, 한일기업 간 협력방향,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일본회사와 협력한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플랜트 시장은 2008년도에 다소 주춤했지만, 지속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의 플랜트시장의 세계 시장 규모는 1조 8,000억불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고저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성장해서 연간 2조 내지 5조 불 정도의 시장규모를 가질 것이고, 2030년도까지는 약 71조 불의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플랜트시장의 공급력의 증가로 발주자의 시장으로 즉,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되고 있고, 경쟁도 매우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부족이나 민영화 추진, 그리고 인프라의 발주증가 등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업체는 엔지니어링과 조달을 중심으로 해서, 후발업체는 기존의 건설 중심에서 엔지니어링과 조달 쪽으로 접근해 가면서 서로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방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과 인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최근에 성숙기에 접어든 내수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시장 진출의 가속화 영향으로 최근 중동시장에서 수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들은 중동중심에서 아시아, 중남미 쪽 시장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흥기업인 한국, 중국, 인도기업들의 부상이 두드러지면서 선진기업과 후발기업 간의 경쟁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기술적으로 앞선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선진기업들과 신흥기업들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분야별로도 선도기업의 집중도가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과 해양플랜트 등에서도 일부 스페인 기업과 이태리 등의 선진기업이 마켓 세어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서유럽기업의 성장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화공과 폐수, 폐기물처리 등 환경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중동에서 한국 플랜트 수주의 약 70%를 차지하는 집중도를 보이고 있고, 대형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체 플랜트 시장을 보면, 고유가의 영향으로 시장을 주도해 온 오일, 가스나 화공, 플랜트 중심에서 발전과 수처리 등 환경분야로도 급격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간의 협력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별 플랜트 수주동향을 보면, 일본기업은 수주규모가 아시아, 중동, 대양주 순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흐름의 하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기업들이 중동지역에서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일본기업은 오히려 중동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본이 오일, 가스하고 발전플랜트

등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한국은 해양,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해수 담수, 오일·가스 순으로 플랜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해양분야에서 한국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부유식 생산·저장, 하역설비인 FPSO 등의 해양설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고, 한국의 조선기술을 유효하게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화공플랜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부품과 기계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협력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기업들의 기술과 품질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서 가격과 품질을 갖춘 한국 EPC 건설업체들과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일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발주금액이 1조 엔에 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EPC건설 발주 이외에도 공동으로 협력해서 투자하는 협력 규모도 1조 7,000억 엔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자원분야가 약 1조 2,000억 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양국기업의 협력사례는 브라질의 나미사 철강회사에 포스코와 이토추상사, 신일본제철 등이 공동으로 인수해서 협력한 사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가스공사와 미쓰비시상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나미사 철광석회사와 인도네시아 LNG 공동개발은 한일 양국의 시장수요를 연계해서 공동개발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설비와 UAE의 화력발전소 등의 부분은 양국의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입찰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기업 간의 협력은 각자의 강점을 살

려서 윈윈 하는 협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강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막강한 투자 자금력과 금융 경쟁력, 현지에서의 오랜 경험, 원천기술을 포함한 높은 기술력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내는 도전정신과 결단력, 그리고 가격과 품질을 어느 정도 일정수준까지 고루 갖춘 EPC건설의 경쟁력, 그리고 비교적 싸면서도 충분히 품질을 보증하는 운영·유지보수에 관련된 경쟁력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있어서 프로젝트 시장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의 JBIC(일본국제협력은행)와 한국의 수출금융인 ECA(수출신용기관)금융이 조화를 이룬다면, 경쟁력 면에서 어떤 프로젝트와도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함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서로의 강점을 살려서 단순 EPC건설 협력에서 투자운영사업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리스크가 큰 해당지역에서의 경험을 분담해서 신흥시장인 중남미, CIS, 아프리카 등에서 협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뿐만 아니라 플랜트 규모가 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플랜트의 속성상 서로가 힘을 합치면 경쟁력도 강화되고 리스크도 분산하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플랜트사업 이외에 일본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분야도 좋은 협력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바이오나 태양광 같은 분야로서 양국이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투자를 통해서 대형사업을 개발한다거나, 생산품의 판매사업을 제휴하거나 하는 협력이 있을 것입니다. 또 천연자원과 식량자원의 개발도 공동투자 및 개발로 크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은 리스크가 큰 만큼, 투자비 부담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고 개발경험도 나누고, 또 식량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해외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세계 곡물 메이저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저희 삼성물산이 미쓰이상사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만자니오에 있는 LNG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인수기지 사업입니다. 2005년 말에 우리들이 철강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멕시코 전력청을 방문했을 때, 멕시코 LNG 인수기지에 대한 사업안건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 외에 LNG 인수기지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나가던 중, 2006년도에 LNG 인수기지에 대한 칠레의 안건이 나와서 한번 공동으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 때는 실수를 하였지만, 이를 기반으로 해서 LNG 인수기지에 대한 사업기반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멕시코 LNG사업이 시작되면서 미쓰이상사에게 저희들이 협업을 제안하게 되었고, 마침 파트너를 찾고 있던 미쓰이상사가 저희와 합류해서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3사가 협력해 경쟁력을 확보해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해서 멕시코에서 LNG 인수기지사업 뿐만 아니라 해상 LNG 인수기지인 FSRU라든지 가스파이프 배관망 사업 등의 사업으로도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멕시코 LNG 인수기지의 사업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서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태평양에 인접한 만자니오시에 LNG 저장시설 및 재기화

설비를 제공하고 20년간 운영하는 BOO투자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7,500만 불이고, 지분은 미쓰이하고 삼성물산이 각각 37.5%, 한국가스공사가 25%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3사의 역할분담은, 삼성물산이 메인설비에 대한 건설과 함께 한국의 수출지원금융을 활용하고, 미쓰이가 접안설비를 건설하고 일본계 금융조달을 분담하는 구조였고, 한국가스공사는 건설공사 감리와 함께 운영유지 보수계약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7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이렇게 힘을 합침으로써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해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구도를 그림으로 보면, 3사가 지분을 투자해서 KMS 즉, 한국가스공사, 미쓰이, 삼성물산을 대표하는 이니셜로 KMS라는 사업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필요자금을 미즈호가 주간사가 되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조달하였습니다. 멕시코 전력청으로부터 연간 375만 톤의 LNG 공급을 받고, 저희가 재기화한 가스를 전력청에 재공급하는 서비스 장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LNG 인수기지를 위한 터미널 건설은 삼성엔지니어링이 건설하였고, 접안설비인 Jetty는 일본의 TOA 건설이 건설하였습니다. 공사후 터미널 운영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원을 해 주었고, 운영자체는 KMS가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간단히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2006년 6월에 입찰이 공고되어 입찰을 했고, 2008년 3월에 어워드가 되었습니다.

2008년 9월에 터미널과 접안설비에 대한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도에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속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건설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멕시코 전력청이 담당하는 준설 토목공사가 지연이 되어, 현재 LNG선 입항과 시운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예상으로는 2012년 1월에

는 본격적인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만자니오 사업은 한일 종합상사 간에 이루어진 플랜트 최초의 사례입니다.

상호 이 사업을 통해서 협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당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들과도 현격한 경쟁력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시에 미쓰이는 멕시코 내에서 다른 LNG 인수기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리드해 나가고, 삼성물산은 금융조달과 건설을 경쟁력 있게 어렌지하고, 한국가스공사도 가장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해 주었기 때문에 최상의 조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종합해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도 하지만, 또 산업발전 과정에서 많은 분야에서 상호보완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진출이 점차 활성화되고 시장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양국기업이 약점을 보완하고 상호강점을 합친다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회도 더욱 확대해 나가는 윈윈의 사업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 간의 우호관계도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삼성물산은 일본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경험 있는 일본종합상사에 근무하시던 우수인재들을 모시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고위 임원들이 일본종합상사나 회사로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류방문을 하면서 협력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쇼지츠 종합상사들과도 정기적, 실무적 교류회도 매년 가지면서 협력확대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한일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우의를 다지면서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는 경제협력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발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그동안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삼성과 미쓰이가 어떻게 협력하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실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플랜트는 에너지 개발에 따른 플랜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플랜트의 세계적인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지구를 놓고 보면 지구 곳곳이 전부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열기에 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은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중앙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개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외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지구가 신흥개도국에서의 경제개발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원개발의 붐에 따른 플랜트 수요도 막대하다고 봅니다. 자원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원을 생산하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의 재정수입이 많이 늘어서 경제개발을 하는 순환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배경으로서는, 경제적인 배경은 아닙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점점 확산이 되고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소위 메나지역에서 자스민 혁명도 목격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앞으로 플랜트나 자원개발에 따른 산업은 굉장히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에 계시는 히라노 카츠미 지역연구센터장께서 자원 안전보장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까.

(5) 일본측 발표

『동아시아의 자원안전보장과 인구보너스의 상실』

平野 克己
(HIRANO Katsmi)
JETRO아시아경제연구소
지역연구 센터장



방금 소개받은 JETRO의 아시아경제연구소의 히라노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개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계의 연구소입니다. 저는 현재 아프리카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주로 개발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개발주의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장기능을 생각한 자유경제주의를 지향하면서 또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이것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과 대만, 중국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을 성장시킴으로써 제조업을 성장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합니다. 경제성장, 완전고용, 소득분배 등은 동아시아

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드디어 거인인 중국에까지 점차적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입니다. 일본이 선행하고 있고, 이를 뒤 쫓듯이 NIES가 뒤따라 오고 있고, 이어 아세안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역이 서로 교체되면서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수출의 비율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이 그래프는 세계의 제조업 중에서 각국, 각 기업, 각 지역이 어떠한 비중을 차지해 왔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구미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역이 점차 교체되면서 아시아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후반은 아시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대두됨으로서 21세기 들어 약간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조강산업의 추이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오랫동안 1억 톤 레벨의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중국은 2000년도를 지나서 갑자기 늘어난 5억 톤입니다. 5억 톤이라는 것은, 일본과 같은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조강 생산량입니다. 그 만큼 중국이 아주 큰 인프라 그리고 철강수요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철강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광석을 포함한 세계의 광물무역을 보면, 2009년 단계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20%입니다. 세계 전체의 광산물 20%를 거의 중국이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자원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고성장, 30년 동안의 고도성장 이외에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제2위

의 경제규모를 차지하는 중국이 사실은 1인당 GDP가 5천 달러에 못 미치는 개도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는 에너지 효율을 본 그래프인데, 부가가치를 1단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자원에너지가 소요되는지를 본 그래프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효율은 서서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도 그 효율이 즉, 중국은 1단위를 만드는 데 약 한국의 2배, 미국의 3배, 일본의 4배의 자원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같은 GDP를 생산함에 있어서 제2위가 교체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세계는 4배의 에너지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21세기의 세계는 20세기 말과 비교해서 막대한 자원에너지를 개발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표는 중국의 원유수입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제 2위의 원유수입 국가입니다. 2008년도에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중국은 석유를 만드는 산유국인데,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어 해마다 거의 폴란드 1개국 정도,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한 국가만큼의 원유수입량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자원과 관련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식량입니다. 동아시아는 인구와 세계 면적표를 비교해 보면, 인구비율이 훨씬 더 큰 지역입니다. 역으로 면적비가 많은 나라는 유럽과 미국입니다. 따라서 지구 전체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적비율이 큰 나라가 토지를 이용하는 생산물을 인구비율이 많은 곳에 수출해야 합니다.

즉, 농산품입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은 식품의 수출이 되고 있고 동아시아는 수입 국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는데, 면적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수입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즉, 세계 곡물시

장이라는 것은 유럽과 미국이 공급자이고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대의 곡물 수입국가는 일본입니다. 연간 2,6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일본은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리걸음입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거의 똑같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지역의 수입량을 보면 아프리카 55개국과 거의 똑같은 수입량입니다. 아시아는 안정되어 있는데, 아프리카는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의 같은 수입량을 전개하고 있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또 하나 불안정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옥수수 수입입니다. 중국 1인당 소득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옥수수의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전반기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곡물시장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곡물수입의 위협은 중국시장의 수입과 아프리카의 식량수입입니다.

이러한 자원조달 때문에 중국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외국을 향한 FDI입니다. 중국에는 연간 1천억 달러 정도의 대중투자가 있는데, 몇 년 후면 중국의 대외투자가 거의 여기에 걸맞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작년 단계에서 중국의 FDI는 일본FDI를 능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투자만이 아니라 지원도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투자와 지원은 아프리카가 최대의 흡수원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도 자원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입니다. 즉, 동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국가전략으로서의 자원 확보, 요구를 어떤 식으로 완화시킬 지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2만 개사 이상의 일본기업이 진출하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정적인 자원조달을 해 주는 것은 결국, 일본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도 계속 증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하면서 자원효율을 향상시키고, 중국의 자원 푸쉬를 조금씩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마도 한국과 일본에도 국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곡물수입을 어떤 식으로 안정화 시킬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한일 자원 공동프로젝트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서 니켈, 코발트를 생산하는 Ambatovy 프로젝트는 20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마조리티는 한국기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코디는 일본의 스미토모상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KORES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고, 여기서의 코발트와 니켈은 모두 동아시아로 가져 온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출범 후, 마다가스카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도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1차 조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도 동경대학과 함께 이 프로젝트의 사회정책(CSR)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곡물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라틴 아메리카에서 저렴한 식량을 조달해 오는 것은 국익으로서 일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성장력과 동아시아의 향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성장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일본은 가공무역입국이라고 배웠습니다.

해외로부터 원료를 수입해서 이것을 제품화하여 수출하여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수출시장은 주로 미국이었습니다. 그것이 80년대 후반부터 완전한 구조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본은 가공무역에서 동아시아로 전개하는 수평분업 체제로 이전해서 분업문제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즉, 원료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제품을 서로 주고받는 무역이 지금 일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분업의 무역을 80년대 후반부터 완성시키는 가운데, 일본의 무역도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 표는 수출입무역이 GDP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국은 100%, 싱가포르 300%이고, 중국도 80% 이상입니다. 세계평균이 50% 정도인데, 일본은 30%입니다. 주요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낮는데, 일본은 이대로 가면 주요국가 중에서 최저 무역개방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즉, 일본은 대단히 내국성향이 있는 나라입니다. 투자의 비율도 일본은 매우 낮습니다. 즉, 일본은 내국적이고 일본국내에서 모두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관련 제도 등 모든 것이 다 내국적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성장률을 저해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최고 많이 지적받고 있는 것이 인구 보너스입니다. 인구보너스라는 것은 노동력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파란선이 일본의 인구보너스 즉, 생산연령 인구가 총인구 중에서 몇%를 차지하는 지 그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 일본에는 2개의 피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1964년부터 올림픽 때까지인데, 이것이 고도경제성장 시기와 맞먹습니다. 또 하나는 1992년에 두 번째 피크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일본은 완전히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인구보너스 상황을 보면, 70

년대부터 강렬한 인구보너스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 통계국이 예측치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한국도 2016년에는 인구보너스가 상실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빨간 선인데, 2015년에는 인구보너스가 상실된다고 합니다. 즉, 인구고령화, 노동력 저하는 동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납니다. 현재 대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20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 인구보너스 상실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경제학 쪽에서 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J.Sachs 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아프리카 경제개발 연구의 권위자가 Warner라는 학자와 같이 아프리카의 저개발에 대해 쓴 가장 훌륭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손꼽고 있는 것은 오픈 가이던스입니다. 아프리카는 무역개방도가 낮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Sachs가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사실 개연성이 높고 통계적으로 확실한 저개발 요인으로서 정설화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경제와도 딱 맞습니다. 사실은 라스트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10년 정도 성장을 못하고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영국이 그렇고요. 하지만 20년 동안 성장을 못하고 있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와 일본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경제연구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폴 크루먼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1994년에 동아시아의 기적신화라는 논문을 썼는데, ‘동아시아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의 고도성장의 주요 요인인 다이내믹은 사실 노동력 증가였습니다. 기술증가는 그다지 기여하지 않았다’고 크루먼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반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구보너스를 보았을 때는 적어도 일본에서는 이 크루먼의 얘기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인구와 사회가 경제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크루먼은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이미 인구보너스의 상실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관계업계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그 이후로 계속 일본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가운데 일본은 올해 동일본 대지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보너스의 상실현상은 일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중국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아시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은 여기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있고, 중국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동아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경제권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명한 역사학자 S.Huntington 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슬람권과 기독교권의 대립을 예측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전반부에는 중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언젠가 경제적인 거인이 될 것이고, 정치적, 군사적 거인도 될 것입니다. 이 중국의 부상이 헌팅턴에 의하면, 중국문명권의 대두가 대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일본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다고 헌팅턴은 얘기합니다.

이런 예측을 우리는 어떻게든 회피해야 합니다. 다시는 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제의 기초연설과도 관련 있는 얘기인데, 이것이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냉전의 붕괴가 동아시아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에는 아직 공산정권이 두 군데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동아시아는 불안정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구성의 변화, 노동력이 점점 적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고령사회에서 사회보장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일본은 대지진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자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은 노동력이라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일본국내에 소중하게 보존시켜야 합니다. 금융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정책적인 육성이 동아시아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자원문제가 대두됩니다. 즉, 최첨단산업을 지키는 희귀금속의 확보라는 과제를 동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경제권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20년을 내다 본 산업육성을 생각할 때, 한일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 생김이 산업협력이 앞으로도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히라노 선생님은 정말 아프리카 연구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아프리카 문제, 또 중동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주 글로벌한 시각에서 동아

시아, 특히 일본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송병준 원장께서 한일 산업협력의 필요성 중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 협력을 긴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회의가 만일 한중일 회의였다면 어떻게 얘기가 되었을까 하는 궁금함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의 타이요전기의 야마다 신조 사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6) 일본측 발표

『한국 투자사례(한일합작사업 30년을 돌아보며)』

山田 信三
(YAMADA Shinzo)
타이요전기(주) 사장



방금 소개받은 타이요전기의 야마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파트너인 KTE전기와와의 합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의 대지진으로 저희도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의 영업소가 해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업소 직원은 모두 무사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만, 아직 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다. 그런 가운데 누구보다도 먼저 지원의 손길을 주신 한국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폐사의 파트

너인 KTE사 구자영 회장께서 신속한 지원 대응으로 위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도 어업(漁業) 복구에 많이 관련되어 있어 우선 저희들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복구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타이요전기는 주로 선박용 발전기, 제어판 등을 제작하는 전문업체입니다. 동경의 간다에 본사가 있고, 자본금 8억 8천만 엔, 연간매출액 160억 엔, 그 중에 80%가 선박용기기이고, 종업원 350명, 선박용 발전·전동기의 국내 점유율은 약 60%정도입니다. 1917년, 동경 간다에 야마다 산리즈사로 창업하고, 1943년 현재의 타이요전기로 이름을 바꾸어 선박용 발전기 업체로서 90년의 오랜 역사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971년에 육상용 기기 분야에 진출하여 빌딩과 플랜트용의 발전시스템과 열병합 시스템 등의 전력공급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는 선박용 전기기 업체로서는 세계 처음으로 영국LR선급협회의 품질보증인증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세계 각국의 선급협회로부터의 품질인정을 받고 있고, 1993년에는 ISO-9001, 2009년에는 ISO-14001의 인증도 받아 제품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후현 카사마즈, 군마현 이세자키에 5개 공장이 있고, 판매회사 등 5개의 계열사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거점으로서 1979년 5월에 한국 부산에 KTE를 설립하고 주로 선박용 제어판의 제조업체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TE는 선박용 제어판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했는데, 최근에는 2000년부터 선박의 스타터 유니트, 그리고 2005년부터는 산업용의 세탁기 제조로도 업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업원수는 230명, 연간 170억 이상에 제어판을 공급하고, 매출액 1,000억

원까지 성장했는데, 1979년 설립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의 규모까지 성장하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은 제2차 오일파동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불황 속에 있었습니다만, 한국 조선업계는 대형조선소가 설립되고 조선업이 급성장을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었고, 엔화강세의 영향 등으로 일본의 점유율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등의 배경으로, 예외적으로 한국의 조선산업은 급성장 추세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내의 상황은, 기자재산업의 기반이 없고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격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높은 관세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 조선소는 기자재의 국산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시장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던 저희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한국시장에서의 거점구축을 모색하고 있었고, 이를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때 자국 선박기기업체의 미래를 위해 기자재 등의 국산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내기반의 육성을 해야 한다는 분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미쓰비시상사 서울지점에서 선박기기 쪽을 담당하고 있던 김승의씨(현재 삼화교역 사장), 그 후 한국 상공부출신으로 조선기기 수출입의 사장이었던 구자영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자국 조선업의 미래에 대한 정열, 경험과 경력, 지식에 비즈니스 관계를 뛰어넘어 매료되어 갔습니다. 그 분들과는 파트너 이상의 신뢰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78년 12월 1일에 합작투자 및 새로운 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하

고, 1979년 5월 25일에 한국타이요전기주식회사(현 KTE)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박용기기 메이커로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새로운 고난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설립을 했던 해, 무엇보다 저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197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박대통령의 시해사건입니다. 설립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계엄령이 발령된 가운데 한국의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예기치 못하게 10월 26일은 주식의 증자금액을 지불하는 기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당시 사장이었던 저의 부친인 야마다 타쿠조(현 상담역)는 전면적으로 구자영씨를 신뢰하고 합작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구 사장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 경영자로서의 결단력에 크게 감동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출발이었습니다. 자본수배에서 제조공정, 제품의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구축해야 했었고, 시행착오의 상황 속에서 드디어 1980년 5월에 첫 번째 제품이 완성되어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익면에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만, 그 완성도와 품질에 대해서는 조선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도적 역할을 하는 기술자를 1983년까지 4년간 파견했고, 일본에서의 기술연수 등 백업지원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은, 초창기의 한국 측 직원들의 열의와 노력, 그리고 서로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온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제1호 배전판을 갖고 1980년 5월 15일에 실시된 KTE의 창업축하 기념식 자리에서 당시 사장이었던 저희 부친의 격려 말씀으로, 'KTE와 함께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KTE의 여러분들에게 큰 자신과 의욕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영 회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모든 것을 無에서 시작했던 KTE는 타이요 회사의 아낌없는 협력, 그리고 KTE 초창기 멤버의 많은 노력, 양자의 뜨거운 열정으로, 현재 전 세계의 선주와 조선소에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인드를 다음 세대에도 승계하여 한일의 국경을 뛰어 넘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대응하는 시장의 수요에 부응한 제품개발 노력은 반드시 세계시장을 리드하는 힘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타이요전기에서는 앞으로의 선박용기기도 환경관련의 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해 갈 것으로 보고 이 개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한국 조선업계에서 단련된 KTE와의 기술교류의 긴밀화는 선박에 있어서 전기라는 클린 에너지의 활용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한국기업이 갖고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세계시장을 내다본 가운데 과감한 도전정신은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함께 역경을 이겨내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협력정신은, 우리 다음 세대로도 계속 계승되어야 합니다. 젊은 기술자의 교류활동, 차세대 경영자 측면에서도 KTE 구자영 회장의 자제인 구본승 부사장과 저의 장남 등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의 시대, 새로운 한일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뿐만 아니라, 세계 선박기기의 시장을 리드하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술강국인 양국의 한일공동체로서 협조하는

것은, 많은 분야에서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이 가진 힘을 더욱 더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가 간의 연대가 더욱 더 전진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야마다 사장님 쪽에서는 3대째, 그리고 한국의 구자영 회장님 쪽에서는 2대째 대를 이어 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형제보다 더 진한 우애관계와 협력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토론을 하기에 부족한 시간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발표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경청해 주신 여러분하고 바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일 간의 산업협력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고, 또는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고 자기 소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 자유 토론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 위기 속에서 일본기업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내년에는 2%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본기업의 저력이 이번에도 다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과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한일 간의 부품소재를 비롯해서 안정적인 공급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모두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측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전력기반과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정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간의 분업이나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융합형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중요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하나의 모델로 융합되고 비즈니스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같은데서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일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한일 간의 교류도 많아지고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일 간에는 글로벌 분업 네트워크와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송병준 원장께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한일 기업의 최근의 투자사례가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관해서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런 대기업측면에서의 한일기업 간의 제휴와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기업이 고쳐야 하는 부분과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마리씨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의 마인드나 심리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대지진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즉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소비를 할 수 있었는가? 라는 심리라면, 최근에는 동일본지

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본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한,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고견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삼성물산의 김창수 사장님에게 여쭙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과 미쓰이물산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잘 되었다고 하는 점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한일기업 간에 어떻게 극복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 경험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JETRO의 히라노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대로 중국의 자원폭식이 문제된다고 하면 원자재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석유라든지 1차금속 등 각 분야의 위기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러한 전략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최근에는 에너지정책이 일본에서도 상당히 변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강화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하고 아프리카 경제를 비교하는 재미있는 포인트를 보여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최근에는 아프리카가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5%이상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아프리카가 회복하고 있는 포인트가 앞으로 일본이나 한국의 인구보너스가 없어지는 경제 속에서 시사점이 있는 교훈이 있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좌장 : 우리 이지평 박사께서 발표하신 분

들에게 하나씩 다 질문을 주셔서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실 분들은 모든 분들께 질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질문이 나온 차례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산업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대기업 부문에 있어서 한국기업이 견지해야 될 방향이나 전략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노사관계라는 것이 훨씬 취약합니다. 그래서 임금도 높고, 강성노조가 생길 수 있는, 소위 노동조합이 규모의 경제성이 달성될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항상 노사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 측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확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2, 3년간은 노사관계가 상당히 안정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좀 더 치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대기업을 포함한 우리 경제가 단기 압축성장에 늘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단기 성과위주의 전략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기업의 안정적이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전략과 조화를 이루고, 상호협력의 전략적인 제휴 같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도 기술개발이나 신뢰관계의 형성과 같은 측면에서 과거의 단기성과 위주의 전략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호혜적일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수평적 협력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김창수 삼성물산 부사장 :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입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컨세션을 받은 다음에 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의 정책에 대한 차이가 간혹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구하는 이익과 역할 등의 부분 즉, 미쓰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하고 한국가스공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원만하게 서로 절충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가면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상의 문제, 경쟁력 확보 문제 등이 이슈였는데, 현지에서의 관행과 언어문제 등은 미쓰이가 이미 오래전에 진출해서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리드를 많이 해주었고, 저희들은 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EPC건설에 관련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힘을 합치는 자세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과정에서도 노사문제, 노동력 문제, 물류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환경과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 멕시코 전력청이 해 주기로 했던 준설문제, 철로 이설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본사의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원만히 잘 해결해서 저희들로서는 100% 만족하고 있고, 미쓰이로서도 저희와의 협력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추가사업도 많이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우의를 쌓아 나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마리 미츠오 하쿠호도 상무집행임원 : 질문의 포인트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지진 이후 소비의 패턴이 어

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하나는 지진 이후에 일본인이 한국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하쿠호도 회사 내에는 생활종합연구소가 있습니다. 지진의 재해 직후 한 달 후에 소비경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동쪽지역과 서쪽지역이 완전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쪽지역에서는 특히 여자분들이 매우 침체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방사능 누출의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비경향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있어서는 복구예산의 영향도 있어 많은 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쪽지역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동일본 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비부분 및 멘탈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상세한 자료가 없어 여러분께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그러기 보다는 현재 일본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든지, 세계 속에서의 존재가치에 관련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 나라인 한국과 모든 분야에서 협조해서 앞으로를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히라노 카츠미 JETRO 지역센터장 : 일본의 자원전략인데요. 일본은 2007년에 신국가에너지전략을 일본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이른 것인지 늦은 것인지를 본다면, 중국은 아마 2000년도에 그런 형태로

서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강택민 시대, 1995년에 중국 공산당 안에 그런 자원전략이 발표가 되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많이 뒤쳐진 경향입니다. 2007년경부터 일본에서 자원과 관련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해외에서 확보해 나가는 것은 상사의 지원부서입니다. 이 상사의 해외지원부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정부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JOGMEC이라는 석유와 자원을 확보하는 독립행정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 세계에 지질학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조도문제가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희토류 탐사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부금융까지 포함해서 업그레이드된 정책적인 틀이 자원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하나의 특징으로서 이것이 일본의 어느 곳과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었던 아프리카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프리카로부터 어떤 본받을 점이 있는지? 아프리카 연구에서 무언가 시사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경제 성장을 안하는 나라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20년 동안 아프리카가 경제성장을 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는 가운데 개발경제학이 일류학문이 되었고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도 나왔습니다. 그 성과를 일본의 문제로서 자신들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빈곤을 구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원의 가치가 높아진 다음에 자원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이익배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대단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원 보유국가는 연간

예전과 비교해서 600억 달러정도를 가격상승만으로 얻고 있습니다. 이익배분의 양상이 바뀌었고 산업의 이익률도 자원산업이 훨씬 유리해졌기 때문에 그 유리한 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차이는 무엇이나 하면 정부가 강한지 약한지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역학관계의 변화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자원으로 성장한 나라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것을 자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자원으로 성장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개발이 낙후하게 됩니다. 이익배분이 불평등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보았자 소용없습니다. 자원의 가치가 점점 높아진 가운데 러시아와 중남미 모두 그렇지만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위한 질적인 제한을 해야 합니다.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위험한 나라에 우리는 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신흥국가와 중국, 브라질, 아프리카, 아프리카 중에서 남아프리카는 대단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기업에는 이런 리스크 테이킹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할 수 없다는 통 큰 마음으로 비즈니스 전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일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원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구보너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은 중동과 터키 등의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럽의 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든지, 또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전

반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주민을 수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는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저항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이민자들이 못 들어오면 해외로 진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신흥국가인 브라질 기업을 매입 한다거나, 인수를 하는 식으로 일본경제를 움직이고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가운데, 여러 국적의 사람들, 젊은 노동력을 고용해서 관여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좌장 : 첫 번째 질문인 한국의 노사관계, 일본 기업인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항상 나오는 답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너무 과격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기업을 하시는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시니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노조가입율 즉, 전체 근로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약 15% 정도도 안 됩니다. 아주 낮은 비율이지요.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과 기업들의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노조 전체가 과격하다는 왜곡된 인상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병준 원장께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단기 성과주의를 갖고 있는데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기 성과주의에 대한 반성은 현재 한국만이 아니라 특히, 이번 세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기 성과주의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온 것이,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개혁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제위기를 겪으

면서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기업들의 단기 성과주의가 문제라는 반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본 것입니다만, 이번 세계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하는 방향을 장기적, 「롱텀 캐피탈리즘」으로 가야 한다는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롱텀 캐피탈리즘의 본거지는 바로 일본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히라노 선생께서 아까 일본과 아프리카가 20년 동안 성장을 못하고 있는 곳이 세계에서 2개 지역인데, 그 공통점이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10년 이상된 이야기입니다만, 일본경제의 특징은 원샷트 이코노미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나지 않는 에너지와 광물자원 등만 수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본에서 가공하고 조립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무역흑자도 계속해서 나고, 그래서 일본의 무역의존도도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히라노 선생께서는 지금 일본의 20년 동안의 성장침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의 소위 원샷트 이코노미구조를 바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연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과 한국의 저축률이 약 3% 밖에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경제성장을 많이 할 때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3%대로 떨어져 저축을 가장 적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다른 측면은 소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또 소비증가율은 낮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가계소비증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소비는 많이 하는데도 소비증가율은 낮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잘 되는데 국내소비가 부진하기 때

문에 불경기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은 다 사라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인 저축을 많이 못하는데 소비증가율은 낮다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소득격차가 벌어지면 그런 것인지?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많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어떤지? 결국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는 일본경제도 살아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 의견이 계시다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진행하겠습니다.

히라노 카츠미 JETRO 지역센터장 : 무역 개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샷트형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원샷트형이 서서히 변화할 때는 항상 엔화강세 때입니다. 1985년 프라자합의 시 엔화가 강세가 되었습니다. 그 때 일본 생산설비의 대부분이 아시아 쪽으로 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대만의 투자가 들어와서 동아시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어셈블리라든지 부품산업은 지역이 확대되었고, 이것을 어딘가에서 밀집화시켜서 제품화하는 형태 즉, 수평분업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지금은 미증유의 엔화강세입니다. 왜 일본경제가 이렇게 데미지가 심한데 엔화강세가 되는 것인지 문제입니다만, 이 엔화강세의 메리트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본이 다시 세계로 나가고, 또 일본정부는 금리를 완전자유화해서 0%의 금리를 해도 일본 국내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국에 지지 않는 해외전개, 해외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아마 일본의 다음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축률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에서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일본 내에서 이해되고 있나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인구보너스 상실, 그리고 고령화,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저축하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아시아의 저축률이 높은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면에는 사회보장체제가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후의 저축, 그리고 집을 사는 자금을 저축하는 등으로 높은 저축률을 자랑했는데요. 이것이 고령자 되면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밸런스 때문에 일본의 저축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고령자들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이지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스포츠카 같은 것을 사지 않습니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이 참 중요한데, 고령자에 맞춘 서비스 구성이 아직 구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마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다음의 새로운 개척분야입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업이 진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것이 나오는 소비를 흡수해 가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후지야마 토모히코 미쓰비시상사 집행위원장 :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 히라노 센터장의 말씀이 맞는데요. 먼저 저축률의 저하는 소득에 대한 플로우의 개념 기간 중에서 저축을 하고 있는지, 소비를

하고 있는지의 흐름 속에서 현재 저축률이 심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 그 자체의 스톡은, 일본 민간금융자산은 아직 1,460조엔 대입니다. 그래서 저축 전체의 규모가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 저축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분의 발표, 매우 시사성 있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듣고, 특히 2가지가 특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한일의 사회구조를 비롯하여 경제구조, 민주주의, 시장주의, 과학기술에 힘을 쓰고 있다든지 하는 매우 동질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이 글로벌한 의미에서 제3국에 대한 자원의 확보, 인프라와 관련해서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송병준 원장님과 히라노 센터장에게 여쭙어 보고 싶은데, 한일의 협력체제가 중요해지고 제3국으로의 진출을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그 기반이 되는 한일FTA에 대한 논의가 왜 지지부진하고 한일 양국 간의 토론 속에서 머물고 글로벌하게 전개가 안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한 리스크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일의 경제사회 구조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글로벌 위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위기대응책 등의 부분에서도 더욱 연계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과 같은 재해위기라든지, 더 큰 의미에서 포플리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지 등의 공통과제를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한일 양국이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 그 이전에 사회자께서 제기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과 아프리카가 성장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역의존도가 낮다고 하는데, 통계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만, 해석은 전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은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선진국 자본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주 원시적인 각국들이 자급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엄청 낮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대부분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수직적 결합관계가 일본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엔화강세 때 마다 글로벌소싱이 확산되어 많이 나가긴 하였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다국적기업 등에 비해서는 훨씬 국내에서 소싱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국가 규모 자체가 대부분의 산업과 업종에 있어서 내수시장에서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이, 특히 서비스 분야도 그렇고 해외로 굳이 나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낮은 저축률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공통되는 것인지는 연구해서 검증해 보지 못했는데, 저희 국내의 최근 추세를 보면,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이 경제성장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서 사내유보가 수백 조 가까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차세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국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게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가게의 구매력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축률이 떨어지고 가게부채도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출장을 가면 늘 느끼는 것인데, 소득불평등도를 얘기할 때 보통 지니계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매크로적인 지수가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기업과 개인·가계 간의 분배가 과연 일본도 가게가 충분한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일FTA가 2004년에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협상이 중단된 이후에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재논의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전문가집단에 있어서는 다시금 이슈가 논의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는 과거보다는 조금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충격, 블랙스완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쇼크가 왔을 때 그것을 세어할 수 있다든지 하는 상호보완의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분야를 개척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서로가 분담하고,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리스크를 같이 세어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는 우리기업들도 어느 정도 기술개발의 리스크나 시장창출에 있어서의 리스크나 전반적인 글로벌전략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조금 세어할 수 있다면 위기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도 산업협력의 여지가 과거보다는 많아졌다고 생각됩니다.

히라노 카즈미 JETRO 지역센터장 : 한일, 한중일FTA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일본에서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FTA협상이 되면 반드시 JETRO가 기초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도 한국의 전문가와 무역전문가가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FTA가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는 놀랍고 부럽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괜찮은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국내에도 있고 국제에도 있겠지요. 하지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적극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리스크 테이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본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서 송병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일본의 1억3천만명의 인구를 대국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나라로 이해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전형적인 원셋트 산업을 가지고 왔고, 필요한 것만 무역을 한다는 정신을 갖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그 자체 합중국이 외부로 나가려 하고 있고, 일본만 도태될 수 있습니다. 개방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도 흘려야 하는데 피를 흘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는, 전혀 예측을 못한 분야에서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는 의식적으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에 미래를 위탁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세대가 역시 결정을 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좌장 : 한일FTA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FTA는 아마 금년 중으로 양국 국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느 나라하고 FTA를 할 것인지를 한국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한국은 항상 FTA를 해야 합니다. 협상을 안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캐나다, 호주 등 많습디만, 이런 나라를 제외하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남은 것이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어느 나라하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야마다 신조 사장님의 발표 내용 중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신뢰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FTA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사이에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인데, 사실 현재 공동의 제도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는 한중일 정상회담, 장관회담 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동의 문제는 한일간 문제도 되지만, 한중일 간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석래 단장 : 지금 FTA에 대한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고 한중일FTA문제도 나왔습니다.

저희 재계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는데,

단상에 계신 여러분께서 한중FTA 혹은 일중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 측은 히라노 센터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한국 측에서는 송병준 원장님하고는 전에 만나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한중일FTA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히라노 카츠미 JETRO 지역센터장 :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찬성이고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은 FTA의 땅을 넓혀야 합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 경제는 일본 국내만으로 커버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생산공정을 지역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기업의 대부분이 생산공장을 한국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새로운 관세라고 하는 것을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유로운 부품공급 체제를 일단 정부가 구축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고도 메리트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항상 뒤쫓는 것이 아시아인데 우리도 이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찬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선행해서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에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재로 해서 일본 국내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면 일본은 일단 개방을 빨리하고 일본의 자본의 힘을 더 글로벌화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직면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것은

일부 기업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내에서 전개해 왔기 때문에 아시아 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 리스크 등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이때 투자자들이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도마리 상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익만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그 사회에 공헌한다는 생각을 현지에 파견하는 직원들한테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투자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고석영 E&AWELL Co.,Ltd 회장 : 현실적으로 보아 대학교 같은 곳은 한국입장으로 봐서 많이 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대학교와 교류가 많으면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대학교의 교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특히 한국과는 절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본의 대학교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들은 대부분 정치에만 뛰어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교류, 이공과 계통의 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일본 기업도 중견기업이라든가 일반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영향 끼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좌장 :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고 한국의 투자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FTA없이도 긴밀해지고 있고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TA를 해 가지고 양국경제의 확대균형적인 관계를 더 지속하는 것이 양국에 더 이익이 된다는 원론적인 생각에 저는 FTA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많은 연구도 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협상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FTA로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 무역을 할 때, 전체적으로는 물론 이익이 됩니다만, 그 사회에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산업과 계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산업이라든지 피해를 보는 계층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FTA를 하면 한국의 농업이 큰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워낙 값싼 제품을 많이 만드니까 한국의 중소기업 중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인식을 해 나가면서 한중FTA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FTA는 이익의 균형,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익을 따지면 한국이 일본하고 FTA를 해서 무엇을 얻는냐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일본은 이미 관세가 낮아 FTA를 해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익을 그렇게 좁게 보지 말고, 오늘 토의 테마도 산업협력이고 산업협력의 기운도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FTA가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간의 산업을 더 제도화하는 효과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철 (주)캠크로스 인터내셔널 회장 : 저는 질문보다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송병준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일관계는 획기적인 산업협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동일

본 대지진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여러 산업 구조가 옮겨가고 있는데, 한일관계가 이런 모멘텀을 계기로 해서 여러 산업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한일경제인회의가 43회를 맞이했고, 또 협회가 창립된지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신산업무역회의의 코디네이터를 13년째 하면서 느낀 겁니다. 여러 가지 협력분야에서 산업협력은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한일 경영인들의 협력관계 즉, 일본말로 ‘쓰키아이’는 조금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일본이 지진 이후에 중앙정부의 기능도 큐슈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자동차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분업체제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체를 옮기는 대상 지역이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인데, 한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일본 경제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산원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건비, 물류비, 용수비, 전기비, 토지 등이 있는데 특히 한국은 지자체가 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도 좋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가장 망설이고 있는 점은 노사문제와 복핵문제, 그리고 가끔 독도문제 등이 거론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한일 경영인들 간의 실질적인 깊은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고교생교류캠프 등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감격도 하고 하는데, 기존의 경제인들 사이는 제가 보기에 희석되고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제 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에서 오영호 চে어맨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죽하면 제언사항에 석식회를 활성화 시켜달라는 제언을 넣었겠습니까? 저는 공식적인 파티도 좋고 학술토론도 좋지만,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토대부분을 주최 측에서 신경을 써서, 회의종료 후 예를 들면 가라오케 대회라도 한번하면 어떻습니까? 우선 사람이 친해져야 비즈니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협력이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관계가 희석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한들 잘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최 측에서 이 회의도 이제 43회나 되었으니까 조금 변화시켜 인적관계를 강조하는 분위기로 전환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카스기 노부야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

고문 : 저는 1998년 IMF 때 한국후지제록스를 재건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가 올해로 43회를 맞이했고, 또 FTA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10년 정도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빨리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논의로 끝나기만 합니다. 왜 그런지 FTA가 물론 양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하나, 각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합니다. 여기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각각 이해적인 측면이 있어서 FTA를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FTA의 조속한 체결을 주창해 왔는데, 또 그 이면에는 한일FTA의 체결이 곤란하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큰 열쇠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FTA를 꼭 하자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일본의 새로운 총리인 노다 총리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많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일경제인회의의 하루조직인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도 인재교류, 자격의 공유화 등 FTA의 추진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을 거의 80% 정도 등산을 했고, 정상까지는 20% 정도 남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등을 잘 이끌어 간다면 저는 한일FTA는 성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석래 회장님과 사사키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한일FTA의 조속한 체결을 해야 된다는 선언을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FTA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5W1H로 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에서 그렇게 꼭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김진현 (주)효성 고문 :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조연설을 하신 두 분이 지정학적인 환경에서의 중국의 대두를 강조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느끼는 압력과 한국과 일본의 장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철통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대항하기 힘들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는 많이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져야 하지만,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두 나라가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이 기업인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좌장 :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은 질문이 아니고 구체적인 제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석래 회장님과 사사키 회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김진현 고문의 질문에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중국의 지정학적인 부상과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라고 할까요?

히라노 카즈미 JETRO 지역센터장 : 말씀하신대로 동감입니다. 중국의 해외진출은 경제적인 투자원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이 아프리카에서 인도, 남지나해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화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관점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과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제 기조강연에서 나왔던 의견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저는 한일 간의 현안을 얼른 정리를 하고 동해의 무역권을 먼저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지역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 이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중회의에 가면 중국 측에서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연합해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이룩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중일을 묶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협력하고, 한중일FTA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야만 아시아 지역에도 기여를 하고, 또 어차피 경제적인 힘이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분 회장님

께서 앞에서 제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조석래 단장 : 조금 전 다카스기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이 문제를 이 모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제가 빨리 완성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국 정부의 교섭하는 입장을 보면, 이경태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불신이 있고, 그 불신에서 기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한국 측에서는 '우리는 여러 곳과 FTA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일본이 오라'는 기분으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은 또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 있어서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계에서 양국 정부에게 조금 압력을 넣어서 FTA를 꼭 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끼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10년 동안 정부에 많은 제언도 하고, FTA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양국에 도움이 된다, 혹은 관세문제 등등으로 당장 한국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만이 아니고 넓은 시야에서 보면 양국의 투자와 경제협력이 훨씬 활성화되기 때문에 얻는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대로의 입장이 있어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에서 좀 압력을 넣어서 FTA협상이 촉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사키 미키오 일본측 단장 : FTA문제 대해서는 어제 개회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2004년에 중단된 채

로 있는 이 FTA협상을 가능하면 조속히 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조석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국 경제협회에서도, 다른 민간단체와도 손을 잡고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부에 요구, 압력을 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 중단되었을 때의 한국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본은 지난 8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오히려 침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정부, 정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 이후 2년간 저희들은 어디에다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부 관계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쉽게도 일본 측에서는 별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취임한 노다 총리가 새롭게 각료를 구성하고 출범했습니다. UN회의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 기운이 무르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석래 회장님과 힘을 합쳐서 양국 정부에게 이런 제언을 하고 최대한 빨리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압박, 촉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한국은 FTA를 여러 나라와 체결했고, 그 안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간 FTA를 체결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이 서로 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피해도 입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양국 간에 Win-Win할 수 있고 서로가 가질 수 있는 이득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한일 간에는 가끔 독도문제, 역사문제, 북한 핵문제 등이 마치 바다 위에서 가끔 태풍이 불고 큰 파도가 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바다 밑에서는 항상 끊임 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듯이 기업과 기업의 산업관계에서는 협력의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고 또 실제로 협력사례가 오늘 발표에서와 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협력사례는 더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그동안 한국경제도 많이 변했고, 또 일본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중국의 부상 등 글로벌한 변화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의 사례가 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협력을 제도화하고, 활발화 하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된 FTA문제 등이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본의 정치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산업계, 재계입니다. 정부는 협상을 할 뿐이지 모든 결과는 산업계로 돌아옵니다.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조석래 회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한미 FTA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가 처음에는 관심도 안가지고 전혀 비준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미국의회가 비준을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아주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스 루트 로비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기업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로비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한국과 일본도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일 간의 산업협력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 감사합니다. 제1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경태 원장님과 발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곧이어 한일 양국 단장단의 공동성명 심의 및 오찬회가 36층 벨뷰룸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단원 오찬회는 한일 양국 참가단원들 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하여 2개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기계·전기전자, 금속·철강, 화학·의약, 금융·법무·회계분야의 단원님들은 2층 크리스탈 볼룸Ⅲ, 섬유·의류·식품, 경제단체·공공기관, 종합상사·서비스분야 및 발표자님의 오찬은 2층 에메랄드룸에 준비되어 있사오니 가급적 업종별로 안내된 오찬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나 간단한 소지품은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놓고 오찬회에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1시 50분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5분전까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찬장으로 이동하시어 유익한 오찬회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제 2 세션

테마 : 한일 인재교류 확대

사회 : 【김 탁 (사)한일경제협회 부장,
이하 동일】

유익한 오찬회가 되셨습니까? 한일 양국 단장단의 공동성명 심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인재교류 확대』라는 주제로 진행될 제2세션의 좌장과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세션의 좌장을 맡아 주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한국통 경제전문가이십니다. 1981년에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신 후, 예일대학 대학원,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와세다대학 졸업 후에는 일본무역진흥회, 장기신용은행 종합연구소에서 근무하셨고, 그 후 아오야마대학 조교수, 동경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의 와세다대학에서 교수로서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의 자문위원으로서 다방면에 걸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후카가와 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시기 위해 참가해 주신 한일 양측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회자인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측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보 소장공인진흥원 이사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남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일본 측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국 동경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다카다 노부아키 노무라종합연구소 사회시스템컨설팅부 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각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한 분당 15분입니다. 시간이 짧아 죄송합니다만, 시간엄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진행을 후카가와 유키코 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후카가와 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1) 좌장 인사

深川 由紀子
(HUKAGAWA Yukiko)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와세다대학의 후카가와입니다. 오전 중에 내용이 매우 어렵기도 하고 심각한 세션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오후 세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특히, 기업 관계자 분 중에도 매우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재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오후 세션을 이어 갔으면 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인재교류 확대를 주제로 삼아 발표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네 분의 발표자가 계시는데, 원칙적으로는 한국이 15분, 일본측 10분입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청중 여러분들로부터 질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오전 세션에서도 많은 것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저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 분들의 대응 등을 살펴보면, 역시 한국 분들의 정이 깊은 것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너무 그 정이 깊어 큰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한일 간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FTA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출이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출이 증대되어도 과연 고용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고용을 확보하고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가 서비스화, 소프트웨어화, 지식기반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인재의 교류를 해 가면서 고용을 창출해 갈 것인가? 등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전 중에 나왔던 리스크에 대비를 하자는 관점에서 본다면, 각각에 대한 위상이 확실하다면 FTA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도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처럼 수출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명확해진 가운데, 그렇다면 또 다른 가치를 찾아보자, 그것이 바로 인재교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큰 재해가 있었고 앞으로 또 그런 지진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영원한 리스크 요인인 북한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일본기업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은 일본기업도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에서 온 것입니다. 끝으로, OECD 가맹선진국 중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아시아와 세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그런 부분이 또 비즈니스 찬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일 인재교류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소상공인진흥원 이사장께서 한일산업발전과 인재교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윤보 이사장님은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수이기도하시고,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 등 여러 가지 요직에 계시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2) 한국측 발표

『한일산업발전과 인재교류』

이윤보

소상공인진흥원

이사장



방금 소개받은 소상공인진흥원 이사장 이윤보입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기관이고, 예산은 100% 정부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나고야 도큐호텔에서 개최된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테마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상하 회장님, 강신호 회장님, 조석래 회장님, 최용권 회장님 등이 참석하셨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교수인 관계로 산업발전, 특히 인재교류에 대해서 한일 간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 라는 테마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론에 이어 한일교역과 인적교류 현황, 한일협력의 강화를 통한 산업발전 및 인재교류 활성화 방안,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결론입니다. 짧은 주제발표 시간과 더불어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한일 산업발전에 대한 테마는 여러 발제자 분께서 심도 있게 언급하였기에 저는 한일 인재교류에 포커스를 맞추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고 있듯이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다양한 경제협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현재 양국 간 교역 규모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일 무역역조 현상의 심화로 과거와 비교해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지역화 블록 추세 등 세계 패러다임의 변화로 동아시아의 지역공동체 결성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 간 공동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통한 역외 시장 의존도 저하와 환율 변동성 제어 등 공동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산업 부문에서의 교역 및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FTA 협상 재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미래지향적인 협력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물적교류에서 진일보한 한일 인재교류 활성화를 통해 차세대 한일 경제협력 촉진의 모멘텀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서, 지식정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재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교역과 인적교류 현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한일 양국 간의 교역현황은 자료로 대처하고 인적교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방한 일본인은 303만명(전체 방한 중 44%), 방일 한국인은 145만명으로 지속

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년 4월 기준으로 재한일본인 유학생 수는 3,931명으로 전체 재한유학생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일한국인 유학생은 18,862명으로 전체 한국 유학생 중 7.8%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유학생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학생이 한국에 오는 것 보다 한국학생이 일본에 유학을 가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4>는 2009년 과정별 재한·일 유학생 현황으로 재한일본인 유학생은 총 3,931명, 재일한국인 유학생은 18,86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1998년 한일 정상 간에 합의한 '21세기를 위한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다양한 교육, 문화, 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통한 인적교류가 활성화 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간 취업관련 인적교류는 앞 <표 5>와 같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 및 취업관련 인력이동은 2006년 이후 매년 10만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 수는 2006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사업을 전개하여, 2005년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매년 1,500여명의 해외취업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림 3>과 같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2009년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 추진으로 2010년 2,719명이 해외취업이 이루어져 목표치인 2,700명을 상회하는 등, 동 사업의 시작 이래 최대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취업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면서, 뒤 <표 5>와 같이 2010년 연수취업의 경우 196명으로 줄어들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

니다. 반면, 한일 산업계 인재교류에 있어서는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재단은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사항 해결과 해당분야 기술이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 퇴직자기술지도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우리 중소기업계에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일본 기술자를 수용하는 주요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회에 잠시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 호응은 받고 있지만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추진되고 있는 인재교류 사업은 초기단계로, 양국기업이 요구하는 인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양국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및 제도적 환경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와 논의가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현상에 기초를 두고 앞으로 한일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발전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며, 인재교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산업발전 활성화 방안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또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인재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국 모두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 및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과 세계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도의 지식을 겸비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전문인재를 요구하고 있기에 이러한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양국 모두 협소한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진출 및 선점을 위해

현지 전문인재 유치 및 활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동경대 홍정국 교수와 말씀을 나누었는데, 국적은 한국인으로서 동경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이런 차원의 인재교류도 앞으로 활성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쓰쿠바대학에서 교수를 조금하였고, 한일 경상학회 사무국장과 부회장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공부한 분들이 한국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정년 때 쯤 일본에 가서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한일 인재교류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대학교육의 글로벌 전문인재 수용을 위한 유학생 수용확대 추진 및 해외의 우수대학과 자매결연 확대를 추진하고, 산업계와 대학 간의 제휴를 통해 국내외로부터 인재와 자금을 유치하는 거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건국대학교도 제가 졸업한 쓰쿠바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약 8년 동안 우리학교 학생들이 1년의 폴스칼라십 단기유학으로 약 34명이 유학을 갔고, 또한, 저희 대학에서는 마쓰야마대학, 오비히로대학 등 많은 일본대학과 실질적으로 학생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메이카이대학의 유학생도 가끔 있지만, 방학을 통해 단기간 연수로 방한하여 저희 학교를 돌아보고 문화도 체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학 간의 교류활성화가 한일 인재교류에 있어 상당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양국 인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 및 유치가 미래의 국가·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이에 대응한 한일 양국 간 인재교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양국 간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처하고,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경쟁 속에서 한일 양국기

업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재교류는 양국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 간 인재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단계적인 상호개방을 추진하여 일자리 문제해소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유학 및 취업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원아시아클럽'의 일본 측 고문을 맡고 있고 한국에서도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 한달 보름 전에 동경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어학원을 경영하는 한국 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외국인 어학연수생으로서 한국과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 귀국한 학생이 3분의 2정도가 되어 큰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제기되지 않는 문제들, 양국 단체 간 특히, 조합단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국의 중소기업중앙회와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및 오사카단체중앙회 간 한일 업종별·단체 간 기술교류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에 저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같이 일본을 방문해서 당시 중의원이었던 니카이도 토시히로와 중소기업청장이었던 하세가와 에이치라는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며 한일 인재교류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한일 인재교류를 위해서는 이러한 업종별 단체 간의 교류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외에 중고생교류 라든가 대학생교류 등 여러 교류들이 인재교류 차원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성장원동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은 지금

까지 요약한 것으로 대체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멀고도 가까운 나라'가 아닌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한일 인재교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면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남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께서 한일 인재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남일 본부장님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등을 역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입국심사 브랜드로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시는 등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현직에 계십니다.

(3) 한국측 발표

『한일 인재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김남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남일입니다. 저는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제인력사업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고, 방금 전 소개한 바와 같이 한일 인적교류에도 그동안 상당부분 관여해 왔습니다. 제가 산단공에 오기 전에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정책국장도 했고, 인천공항의 출입국관리소장도 하면서 한일 간의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는데도 역할을 맡았었고, 미국과도 비자면제협정 체결에도 역할을 했는데, 마침 한일 간

의 인적교류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산단공에서 공공분야의 해외인재 진출, 해외취업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가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에서 추구하는 해외취업사업도 여러분께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단공에서는 우리나라 직업안정법 개정에 의해서 공공분야의 해외진출 업무를 전담하는 임무를 받아 한국의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업무를 공공분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 사업은 두 가지 프레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단공에서 세계 각국에 리쿠르트라든가, 한국인재를 필요로 하는 리쿠르트사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경험 인재들을 찾아서 매칭시켜 주는 알선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글로벌 인재들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데에 있어서 관건은 경험과 언어입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이제 막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 3개월에서 1년 동안 사전교육을 시켜서 해외로 진출시키는 연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일본에 대한 목표는, 약 100명 정도를 직접 알선하고, 400명 정도는 교육을 시켜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총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아직 상당히 미흡합니다. 213명을 일본으로 보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일본진출의 현황을 보면, 일본의 대기업에서 한국인재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IHI 미즈모토 노부코 인사부장을 만났는데 IHI는 2009년부터 산단공을 통해서 국내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채용설명회를 하는 등 한국의 인재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매년 저희들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NTT라든가 신일본제철, 야마토우수, 에큐인터랙티브

사 등 여러 대기업에서 한국인재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진출하는 데는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봅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일본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보 또는 일본 중소기업이 한국에 와서 인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부족한 원인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일본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 현황은 작년에 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에 2,771명을 보냈는데, 일본에는 286명을 보내 약 10% 정도 됩니다.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은데 실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벽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하나의 관건입니다. 일본과는 주로 정보통신, 정보처리기사 등 IT업종 중에서 2개의 자격을 상호 인정해 주고 있어, IT의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비자발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IT뿐만 아니라 사무직종이나 Hospitality쪽에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종은 취업비자발급이라는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사무직 같은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전문기술 분야에 한해서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입관법이 취업체제를 허용하는 것은 외교, 교수, 예술, 종교 등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기술분야는 진출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취업비자 받는 것이 너무 어려워 일본진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도 과제입니다. 이러한 취업비자 발급거부가 진출의 장애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취업과 전문직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플렉시블한 반면, 일본은 입관법이 아주 세심하고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자발급 과정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비자발급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일본은 명목상 발급권한은 외무대사에게 있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법무부에서 모두 다 컨트롤합니다. 2 스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영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항상 법무성에 자문을 구해 비자를 발급합니다. 또한, 발급체계에 있어 사증인증제도를 두어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사전에 비자심사를 해 자격을 준수하는 사람에 한해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일본에 취업이 되어도 비자발급 과정에서 기다리다 못해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종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매력 있는 분야로 생각되는데, 관련학과를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제한을 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학과는 따지지 않고 전문성과 필요성을 따지는데, 일본의 비자발급 정책은 꼭 그 분야에서 공부를 했는지, 4년제 대학을 나왔는지가 요건에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는 3년제, 2년제 전문대생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이런 한국의 전문대 출신들이 오히려 중간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3년제 전문대생들한테는 비자발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일본진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어떤 학생이 일본 게임업체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동물관련학과를 나오고 일본어도 잘하고, 게임의 전문식견도 있어 게임업체에 사무직으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학과를 나오지 않았다 하여 비자가 안 나와 못 간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전문대생을 1년에 800에서 1,000여명을 해외로 3개월 정도의 현장실습을 보냅니다만, 일본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일본 입관국에서 3개월 정도 현장에서 문화체험 등을 하는 것을 고용이나 기능의 개념으로 봐 비자발급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같은 곳에서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교류라는 문제는 고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양국 간의 문화교류 차원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스폰서가 되는 등 국가차원에서 문호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비자발급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수단은, 경험상으로 보면 역시 자격인증을 통해서 기술 있는 사람들을 서로가 인증하게 되면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IT 2개 분야를 양국이 서로 인정하니깐 이 분야는 비자발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일경제협회의 이 아젠다가 계기가 되어, 산단공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자격인증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가능한 분야는 당초 5개 분야인 환경, 정보통신, 에너지, 자동차정비, 기계설비에 있어서 자격제도, 동등성, 수요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자동차정비와 기계설비분야를 제외하고, 환경과 정보통신, IT(다른 분야까지 포함해서), 에너지분야는 충분히 서로의 동등성, 인력수급, 국가정책상으로 맞다고 보고, 이 3분야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번에 3개 분야가 벽차다면 에너지분야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분야는 최근 원전문제가 사회이슈가 되어있고, 새로 대두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한일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분야의 자격체계

의 동등성에서도 유사점이 많아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서로 인정하게 되면, 한일의 관련 자격소지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장해요인 중의 하나가 미용과 조리분야입니다. 한식은 한류의 세계화로 많이 보급되어 있고, 일본의 스시 등은 세계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식집의 요리사들에게 자격만 있으면 비자를 내 줍니다. 일본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분야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헤어 디자이너 등 한국 미용에 관심이 많은데, 비자발급 과정에서 모두 막혀버리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로 단기간 하고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발급제도의 보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현장학습의 전문대생들에게는 한국 정부에서 스폰서를 하기 때문에 문화활동 비자보다는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를 두어 호의적으로 일본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대생들에 대한 취업비자가 지금 전면 제한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호를 조금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01년도에 IT분야 자격상호인증에 따른 비자발급 완화조치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분야에 대해서도 한일 자격인증 상호인정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기위해서 워킹그룹을 만들어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민간레벨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정부부처, 산단공의 관련부서와 같이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에너지분야, 나아가서 환경분야까지 자격의 상호인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중소기업도 한국의 인재들을 리쿠르팅 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본 내에서 한국인재를 원하는 기업체, 일본에 유학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 내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場의 개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에서는 '월드잡'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구인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전부 올려놓고, 회원들이 들어가서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찾아 매칭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것을 일본 내에서 재패니스 포탈사이트를 운영하여 한국인재를 원하는 일본업체들을 참여시키고, 또한 일본에 진출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들어와 서로의 정보를 보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포탈사이트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동경에서의 채용박람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 상해와 북경에서 개최하여 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인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場을 만들자 '잡페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고, 10월 9일에는 코엑스에서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일본의 IHI 등 세계 36개국에서 참가하는데, 약 1,500명의 채용계획이 있어 구직자를 접수한 바, 약 4,00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한일 간의 인재교류 문제의 장벽은 비자문제입니다. 이 비자문제의 장벽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과 한국 출입국관리국 등 정부기관들이 서로 노력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은 풀고, 안되는 것은 자격이라는 인증제도를 활용해서 문호를 여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비자제도, 아직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

셨고, 또 구체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기업에 취직하고 싶지만 외국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찾으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딱 맞는 창구역할을 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비자문제도 이런 것의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도쿄대학에서 국제본부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홍정국 교수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취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책과 관련해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홍정국 교수님은 동북대학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하시고 한국농촌진흥청, 일본IBM을 거쳐서 2008년부터 도쿄대학에서 외국인 연구자의 일본 정착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4) 일본측 발표

『한국 청년 고급인재의 수용·취업지속 방안』

홍정국
도쿄대학 교수



방금 소개받은 동경대학의 홍정국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교포 3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인재교류전문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 온 한국 청년 고급인재의 수용과 취업지속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본에 있어서의 유학생의 전반적인 취직현황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한국인재에 특화한 일본기업에서의 취직과 취업현황, 과제에 대해서 이번 발표를

위해 새롭게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한 일본기업에서의 한국 고급인재의 수용과 촉진을 위한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의 유학생의 취업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일본의 유학생 취업정보 관련회사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의 요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일본기업의 유학생 채용에 대한 의향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해외거점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서 두드러집니다. 두 번째로, 일본기업이 유학생을 채용하는 이유로서 가장 많은 것은 우수한 인재확보이고, 유학생이 회사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기업이 유학생에 기대하는 자질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도의 일본어 능력, 전문지식 등으로 일본인과 똑같은 평가기준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일본 법무성의 데이터에 의하면, 유학생이 졸업한 후에 취업하기 위하여 체재자격을 변경할 때의 허가율은 높습니다만, 신청자 수는 졸업생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낮습니다. 즉, 일본기업이 유학생을 채용하는 절대수는 아직 적고, 인재 측과 채용자 측간의 매칭은 아직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기업에 채용된 유학생의 정착도 지지부진합니다. 한편, 한국인재에 주목해 보면, 한국인재의 취업과 정착에 대한 실태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 정부의 지원이 약하고 환경조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기업에서의 한국인재의 취업과 정착의 실태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재의 교류와 활용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에 그를 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의 대상은 일본 국내의 일본기업

에 취직한 한국인재와 그들을 채용, 고용하고 있는 일본기업입니다. 일본기업 159사와 그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재에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인재 가운데 흥미로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만나 히어링도 했습니다. 이 조사에 회답한 기업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일정한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한 내용은 3건입니다만, 취직과 고용의 만족도, 취직과 고용 때에 취한 행동과 인식, 그리고 취업지속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인재와 기업 간에 보여 지는 매칭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그럼 이 결과의 요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 인재와 그들을 채용한 일본기업 간에 잘 매칭된 것과 미스매칭이 눈에 띄었습니다. 잘 매칭한 경우는 한국 인재가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서로 만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미스매칭의 사례로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인재가 지금 회사에 취업할 때 여러 가지한 취업활동의 내용, 그리고 일본기업이 그들을 채용할 때 취한 방법, 인식 등의 사이에 미스매칭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인재가 취업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과, 일본기업이 생각하는 내용에 역시 미스매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인식도 서로 미스매칭 되었습니다. 미스매칭, 매칭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한일 공통 전문자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인재와 기업 모두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표는 잘 매칭되었다는 항목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인재도, 채용한 기업도 서로 현재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국 인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학력과 전문성,

자질 등이 중요시되어 채용되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들을 채용한 기업 측으로서는 그들을 인제본위, 능력본위로 채용하고, 고용했다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취업의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26페이지에 몇 가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미스매칭으로서는 현재는 서로 만족은 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 인재가 향후 현재의 기업에서 취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또 그 경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건이 기업 측의 여건과 서로 맞지 않고 격차가 큰 경우입니다. 특히, 한국 인재는 앞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더욱 더 제고해서 캐리어 업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가족에 대한 배려 등을 중요시 하고 있지만, 일본기업은 관심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인재가 일본기업에 취업해서 지속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은 14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가운데 일본 측이 취해야 할 행동과 양국 공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입니다. 일본국내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기업에 취직할 때 필요한 방안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 유학생에 특화된 취업지원을 하는 것, 영주권이나 주택론 등의 복리후생과 각종 법제도의 개선 등이 특히 중요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구체사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 양국 간에 공동작업을 해야 할 방책으로서 5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일본유학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사이트를 양국에서 공동운영하는 등 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정확하고 많이 제공해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위 있는 양국의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몇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다음, 한일 공통의 전문적인 자격제도를 보급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일본어능력 검정시험제도로써 BJT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 지도교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양국 모두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본기업의 정보가 대학 측에 충분히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양국 간에 산학연계를 위한 협의회가 있으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실현화가 첫 걸음일 것 같습니다. 한국 고교생의 일본유학 기회를 늘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공계를 중시하는 현 상황의 유학지원책에 더해 문과계의 학부유학을 지원하는 방안은, 한국 고급인재의 활용 폭을 확대하는 것이고, 일본기업의 수용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고, 민간차원에서 정부차원까지 폭넓고 다방면에서의 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양국 고교생의 지속적인 교류부터 시작해서 FTA/EPA 등에 이르는 폭넓은 인프라 구축, 강화를 기대하며, 양국 정상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양국 경제인의 협조 하에 각종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양국 간의 환경조성이 촉진되고 인재와 기업 간의 매칭제고가 도모되어 인적교류가 더욱 더 촉진될 것을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제도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 상황이 어떻고,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인 인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카다 노부아키 노무라종합연구소 사회시스템컨설팅부 담당부장님이 ICT·개호분야

의 자격 상호인증·자격인재의 고도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카다 부장은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1981년에 노무라종합연구소에 입사하셨습니다. 한일FTA/EPA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의 국토정책이라든지 천진경제기술개발구 발전전략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일한경제협회에서도 일본 측의 주사로서 제언과 권위를 위해서 많은 힘을 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일본측 발표

『정보통신기술(ICT)·요양보호 분야의 자격 상호인증·자격인재의 고도화에 대하여』

高田 伸朗

(TAKADA Nobuaki)

노무라종합연구소

사회시스템건설팀부장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다카다입니다. 일본 측의 인재교류 지원부문에 있어 제가 참여했던 부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격의 공통화, 또는 상호인증 분야에 대해서 지난 1년간 경제인회의 이후 연구해 온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ICT 분야와 요양보호 분야입니다. ICT 분야는 이미 한일 모두 상당히 발달해 있고, 고급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그 반대를 포함해서 인적교류의 이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편, 요양보호 분야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모두 앞으로 조속히 대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격의 공통화와 인재교류 부분은 아직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ICT 분야의 자격상호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간에는 이미 2001년부터 초중급 ICT기술자의 자격상호인증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중상급에 있어서는 자격에 관한 양국의 관점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자격상호인증, 자격의 조화 부분에서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의 경제인회의에서 제언할 때도 양국 정부에게 ICT자격의 통합에 대해서 제언을 했습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에 걸쳐 대상이 되는 자격을 정리하거나 제언을 구체화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자격의 상호인증 체제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ICT분야의 인재자격을 통합하고 인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계 특히, ICT분야의 산업계에 있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양국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봅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격이라는 것을 아시아 전체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양국 산업에 더욱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 대학을 졸업하는 ICT인재, 전문가들과 일본의 대학을 졸업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곳은 일본기업, 일본 본사이기도 하고, 또는 일본기업의 한국법인, 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한국기업의 한국본사도 있고, 반대로 한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했을 때의 일본사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졸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이직을 하는 것 등 유동적인 경우에 자격의 통합자격을 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ICT분야의 인재교류 패턴에 대해서는, 우선은 양국기업에서 자격공통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과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

는 M&A나 사업을 양도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자격의 상호인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표는 양국의 자격을 정리한 것인데, 밑에서부터 레벨 1, 2, 3, 4, 로 올라가며, 그 위에 기술사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일 모두 기술사라는 자격이 있고, 또 한국에는 국가자격과 함께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레벨 4, 그리고 그 위의 기술사급을 대상으로 자격상호인증 또는 자격 공동화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 가지 개념의 검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국의 기술자자격 중의 레벨 4 이상에 대해서 국가자격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민간자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복수의 자격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자격 간에 존재하는 겹이나 내용의 차이를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수나 강연회 등을 통해 충실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경우, 담당기관과 단체, 전문가들에 의한 워킹그룹을 설치해 협의를 하고, 제언을 제출한 후에 실시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자격의 상호인증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양국의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자격인증에 대한 기초를 만들고, 이것을 아시아로 표준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레벨4 자격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 시스템아키텍트, 정보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 일본의 이 네 가지 자격은 한국의 전자계산기 응용기사, 정보통신기사, 데이터아키텍처, 정보보호 전문가 등과 같은 자격과 서로 조정을 하면서 상호자격을 인증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연수,

강습체제가 필요합니다. 연수와 강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방법인데, 특히 능력면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연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분들에게는 일본어와 일본 비즈니스 관행 같은 것들을 사전에 연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나는 경우, 특히 지식과 관련해서는 강습이 기본이 될 것 같고, 경험과 관련해서는 연수를 조금 더 하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4 자격 중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IT스트라테지스트, 프로젝트 매니저 등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시험을 면제한다거나 또는 일본에서 취득한 자격을 한국으로 갖고 왔을 때 인정을 해 주는 형태로 자격의 조화, 통합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 이 같은 자격시험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벨 4 보다 높은 레벨의 자격인 기술사는 서울·어코드의 공학교육표준화 등을 통해, 대졸레벨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지식, 노하우의 동등성이 이미 보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호인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EC 전체에 있어서는 APEC 엔지니어 제도의 범위 안에서 양국이 동등하다고 승인을 하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국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겹이 있다면 연수와 강습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제언 액션플랜 3개년 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고급자격의 상호인증 추진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비해서 3년간 실시를 하고, 제일 밑에 있는 FTA/EPA의 틀 안에서 협상을 하는 가운데 상호자격인증, 인재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요양보호분야의 자격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이 조금 더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 있어서는 2번째로 한국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요양보호가 필요하게 되고, 이 문제가 양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격상호인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요양보호 즉, 요양보호의 표준화, 요양보호의 전문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이 요양보호 분야의 자격통합의 의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아시아에서 가장 고령화 진행이 빠른 가운데 공동의 대처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양국에 있어서 요양보호의 표준화, 물론 각각의 국가에 있어 단일국가로서의 개념이 있을 것이지만,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적인 표준화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요양보호 자격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수한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쪽으로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산업은 양국의 고령화 진행속도에 따라 앞으로 더욱 더 큰 산업분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산업분야를 양국이 모두 충분히 준비를 함으로써, 이후에 중국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고령화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육성하는 것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고령자 요양보호 복지에 있어서의 자격공통화 단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칠 것으로 봅니다. 먼저, 한일 양국 모두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사회, 문화, 제도가 서로 차이가 있겠지만, 고령자케어에 대한 표준화를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공통의 텍스트를 가지고 케어에 대한

이념, 윤리, 지식, 기술을 공동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분을 서로 공통된 것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진전시켜서 양국의 고령자 요양보호 복지에 있어서의 국제치매케어 전문가 자격제도를 만들어 글로벌하게 확대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지역문제에 있어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국제적인 문제해결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표현했습니다만, 3단계를 거쳐 실시하면 합니다.

첫째는, 양국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인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치매케어학회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자격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인재육성을 위한 텍스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등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치매케어 전문가를 통해서 글로벌한 자격을 만들고, 이런 인재육성을 위한 시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은 어떤지요? 이런 것을 촉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한일 간에 체결해야만 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케어 전문가를 육성키 위해서는 연수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수에는 자격과 지식을 위한 연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연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수기간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같은 연수를 일본에서 할 때, 한국분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비자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이런

복지 요양보호 인재의 취업, 연수는 산업 분야보다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보호 산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요양보호기구의 규격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JIS규격에서 복지용구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이 부분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이 같은 산업의 공통화, 자격의 공통화뿐만 아니라 복지용구의 규격도 공통화하고 표준화 한다면, 요양보호 산업이 만들어지고 비즈니스 관계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같은 두 가지 자격, ICT, 요양보호분야의 자격상호인증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는데, 자격공통화에 대해서 앞으로 양국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 고급인재교류는 FTA/EPA 안에서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FTA는 좀 더 조기에 재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개별협정을 통해서 선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ICT분야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양국의 관련단체, 전문가에 의한 워킹그룹을 설치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고, 요양보호에 있어서도 1단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조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세계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양국 모두 고용상황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에게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되고 서로 역동성을 도모해야 하는데, 시장이 커지는 분야 ICT와 요양보호의 시장 자체가 확대되어 간다면 조금 더 하

기 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격제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늦게 시작하긴 하였는데, 15시 45분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비즈니스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 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고 간단하게 소속과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6) 자유 토론

이형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저희는 현재 한일 인력이동의 활성화를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저와 같은 연구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유익한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멘트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로 발표된 주제가 한일인력이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일본의 비자문제 개선과 MRA추진 등이었는데, 저희가 연구를 추진하면서 얼마 전 지방의 대학에서 인터뷰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비자문제 개선 등은 당연한 것이고 국내의 제도나 문제도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부 부처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해외취업 연수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학들이 참여해서 일본에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2개의 프로그램의 기간이 중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서류준비와 비자발급 등의 문제로 사실상 5월경에 시작되어 9월

초순에 끝나게 되는데,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학사일정 때문에 7월부터 시작해 8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기간이 오버랩 되어 참여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대학의 평가와 연계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는 취업률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작년까지는 해외취업이 대학의 평가에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국내에 취업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해외취업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취업에 가산점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해외취업에 대한 항목을 더 강조한다든지 하면 학교에서 해외취업에 더 신경을 쓰게 되어 해외취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일본의 개선책이라면 저는 국내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한국 측 두 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신지요?

김남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 : 두 가지 사업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부기관이 이원화되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인턴사업도 우리 산단공에서 하다가 현재는 지경부, 농림수산부 등 8개 부처로 가서 교과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사업은 해외에 직접 진출하는 개념은 아니고 약 3개월 정도 현장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의 현장경험을 쌓은 사람을 해외취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라든가

대학교 같은 곳에서 인턴으로 갔다 온 사람을 저희 인력공단의 월드잡이라는 구직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취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해외취업을 대학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3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드디어 금년에 대학역량강화사업 평가에 해외취업 사항이 들어가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해외취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내년에 GE4U(글로벌 청년취업)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대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사업인데, 이것도 대학역량강화사업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윤보 소상공인진흥원 이사장 : 지금 대학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교과부와 관련된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중앙일보 평가와 최근의 조선일보 평가입니다. 중앙일보의 평가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되었는데, 해외취업의 항목평가가 들어갔는지의 유무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평가를 할 때 국제화지수라고 해서 외국유학생의 수용규모가 상당히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취업하는 것을 평가지수로 넣었을 때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 시행기관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지금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에서 똑같은 대상으로 부처마다 성격을 다르게 하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과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은 똑같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지만, 하나는 규모를 대상으로 해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력을 양성하

는 것이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은 산업 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하나의 대상인데 부처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을 단일화시켰을 때 호불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영 배재대학교 교수 : 최근 EU가 하나가 되면서 신아시아, 원아시아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세대 산업 전문가들이 잘 사는 아시아, 친구 되는 아시아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 학생들의 교류가 있어야 하기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들어 보니 한국 쪽에서는 일본의 취업문제가 2년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 청년취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 쪽은 산업인력의 파트너로서 유학생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일 간의 이런 인재양성 문제를 큰 방향을 정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남일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취업을 할 때 보면, 4학년 학생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서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일본과 협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유발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일본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취직할 때 필요한 실무 예를 들면, 비즈니스 언어, 문서작성, 컴퓨터 활용, 기업문화 등을 가르치면 정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면, 가칭 ‘차세대 산업인력양성’이라고 해서 1학년부터 4학년, 대학원까지 연계되는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면, 학부 1, 2학년 때 단기로 일주일 정도 일본 산업계를 방문해서 일본진출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런 학생들에게 2, 3학년 때 언어를 가르치고 또 학교 협력사업으로 1년간 유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친 4학

년들에게는 단기간으로 2주간에서 6개월 정도 중간기간 인턴십을 협력하는 대학과 학생들과 같이 한국과 협력을 하겠다는 기업을 찾아서 보내 주시면 좀 더 한일 간의 학생교류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홍정국 교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일관계가 두 나라만이 아닌 아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본을 잘 아는 한국학생들, 또 한국을 잘 아는 일본학생들을 양성시켜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요원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잘 자라서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 반열에 들 학생들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우수대학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또 일본의 동경대학, 게이오, 와세다대학의 학생들이 학부 때부터 만날 기회를 주어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되는, 차세대 산업정책과 사업 같은 것들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한국학생들이 일본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아시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영어권으로 가기 보다는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유인정책들을 만들어서, 신아시아시대의 젊은 아이들이 친구 되는 좋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 김남일 본부장님, 홍정국 교수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남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 : 임대영 교수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점을 많이 느끼는 것인데, 일본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쪽을 보면, 수학이나 과학의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한국에는 그런 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서 이것을 매칭시키다 보면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공주대학교 총장님과 만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주대학은 사범대학으로 매우 명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해외를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은 1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기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언어와 현지문화 같은 것을 4년을 준비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도 대학을 순회하면서 해외의 잡포스팅하는 기회를 많이 갖는데, 그 때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정국 도쿄대학 교수 : 일본에서도 한국하고만 교류를 한다거나 또는 미국하고만 교류를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윤보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화를 위해서 어떤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곳이 한국이고 일본인 것입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넓은 시야의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잠재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기본이 된 후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이번 주는 도쿄 롯본기에서 개최하는 한일교류축제를 한일 간의 학생축제 버전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몇 번이나 언급이 되었는데,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같은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학생까지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학생 버전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대함으로써 좋은 의미에서 여러 차세대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보아 찬성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다음 손을 드신 두 분의 질문만 받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재철 스미토모상사 과장대리 :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만, 회의내용과 관련이 있어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일본의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바로 스미토모 본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회의 테마를 보고 느낀 소감은, 저는 한일 간의 전문가들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게이오, 와세다, 히토쓰바시도 모두 MBA코스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일본에서 다시 활동해 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일본에 오는데, 사실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취직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본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사람 위주로 뽑습니다. 아까 IHI나 NTT같은 업체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정보도 없었고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헤드헌터 같은 사람을 만나도 한국인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말을 취업활동 시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 교수가 제안하신 정보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인적교류라고 하지만 오늘 발표가 모두 한국 인재를 일본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류라는 관계보다는 수출, 수입의 관계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한국 인재가 일본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본 젊은이들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일본의 베테랑 퇴직기술자들이 한국에 와서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적교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한국의 학부 졸업생들을 위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밸런스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밸런스는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강사 분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 그리고 코멘트와 질문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제2세션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신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주신 양측 발표자 분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세션을 마치고, 지금부터 10분 동안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겠습니다. 폐회식은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5분 전까지 이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Coffee Break>

7. 폐 회 식

(1) 공동성명 채택

사회 : 【이중윤 (사)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이하 동일】

그럼 지금부터 폐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폐회식의 진행은 조석래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조석래 단장 : 여러분 이틀에 걸쳐서 열띤 토론을 해 주시고 많은 분이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회식에 앞서,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안)을 채택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준비한 공동성명(안)을 사무국에서 발표 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국 사무국에서 공동성명(안)을 각각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사)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한일 양국 경제협회에서 작성한 공동성명(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안)』

(한국어로 낭독. 이하 생략, 공동성명 전문은 본 보고서 II항에 기재)

是永 和夫
(KORENAGA Kazuo)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안)』

(일본어로 낭독. 이하 생략)



조석래 단장 : 이상으로 양측에서 공동성명(안)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이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 지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허남정 에스포유 회장 : 좋은 공동성명(안)을 만들어 주신 회장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한일경제협회가 대일 민간협력의 창구입니다. 그리고 한일경제협회가 이 회의를 주관해 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일경제협회가 올해 2월로써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 기조연설에서도 한일경제협회 30주년을 축하하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도 여러분이 회의 중간 중간에 한일경

제협회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많이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동성명(안)에다 한일경제협회 3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고 사무국에 일임하겠습니다.

조석래 단장 : 다른 의견이 또 계시는지요? 허남정 회장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 허남정 전 전무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은 한일 간 같이 합의되는 것이고, 한국의 것을 일방적으로 넣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허남정 전 전무님의 기분을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의 것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석래 단장 : 여기에 대해 다른 분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일한경제협회도 사실 금년이 50주년이 되고, 한일경제협회도 30주년이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만, 조금 전 이종윤 전무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측의 합의가 있고, 문안을 만드는 것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의 (안)대로 가기로 사사키 회장님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공동성명(안)의 승인을 여쭙겠습니다. 찬성해 주신다면 큰 박수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원래 각본에는 회장님이 사회권을 저한테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회장님이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국 단장님의 폐회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의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의 폐회인사가 있겠습니다.

(2) 단장인사

佐々木 幹夫

(SASAKI Mikio)

일본측 대표단 단장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결친 회의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한일 경제인회의는 최근 한일양국의 경제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한편, 글로벌하게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대지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가 강점으로 삼아 왔던 치밀한 공급망이 단절된, 그야말로 시대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양국 경제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면서 양국기업이 서로 연계하여 제3국을 무대로 글로벌하게 코어워킹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를 짚어질 양국의 인재육성, 인적교류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경제관계의 가일층의 발전과 새로운 전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협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활발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뜻 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연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패널디스커션에 참여해 주신 코디네이터, 패널 여러분께서도 훌륭한 말씀과 논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 한일경제협회와 협력하면서 양국 경제관계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해 사후활동을 더 활발히 전개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경제인회의의 개최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석래 회장님, 그리고 한일경제협회 사무국 관계자 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움을 주신 통역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일경제인회의는 앞서 소개가 있었던 바와 같이, 내년 5월에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의 성과를 계승해서 내년에 성대히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여러분과 다시 한 번 만나 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측의 조석래 단장님의 폐회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석래

한국측 대표단 단장



세계경제가 어렵고 또 한 일본에서는 3월에 대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많은 분들이 먼 길을 오셔서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발표해 주신 분과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에게도 이 회의가 아주 활성화되고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4월에 했어야 했는데, 6개월 연기되어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양국의 경제인들이 훨씬 더 친밀도를 높여가고, 또 경제협력도 잘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양국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도록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한일경제인회의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사사키 회장님하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이 어려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덕택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 무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사키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논의한 것 중에서 제일 큰 아이템은 역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것이 아마도 우리 양국 경제인의 염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적교류에 대해 많은 말씀이 계셨고, 이에 대한 중요도는 모두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고교생교류캠프, 이것은 굉장한 효과를 얻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양 협회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방금 전, 허남정 전 전무가 한일경제협회 30주년, 그리고 사사키 회장님은 일한경제협회가 50주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양국 경제협회가 30년, 50년의 노력을 해 가는 사이에 차츰 차츰 열매를 맺어 오늘 날의 이런 좋은 모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오늘 다카스기 회장께서 한일FTA가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지 않는냐는 말씀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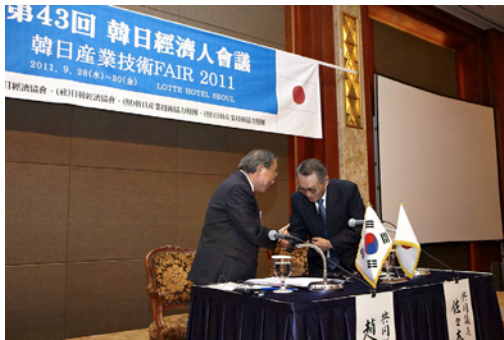
로서는 이 한일FTA가 10년이 아니고 25년 전에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양국 정부를 동원해야 하는데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을 빌려서 양국 정부에게 강하게 건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바라는 한일FTA를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FTA의 결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를 동안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성공리에 이 모임을 끝낼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5월에 오사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폐 회

사회 : 조석래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훌륭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신 조석래 단장님과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틀간에 걸쳐 회의통역을 해주신 김혜원, 이정남 두 분의 통역사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폐회식이 끝난 후, 잠시 후 4시 30분부터는 양국 단장님의 공동기자회견이 2층 아테네가든에서 30분간 예정되어 있음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력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내년에 일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한일경제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

<종료>



VII. 양국단장 공동기자회견



사회 【(사)한일경제협회 이종윤 전무이사, 이하동일】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이종윤입니다. 시작이 10분 정도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5시 10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끝난 폐회식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사무국에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순차통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만일 질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중간 중간 끊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동성명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 그리고 어느 분께 질문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뉴스 : 지금 한일뿐만 아니라 FTA와 관련해서 한중일 3개국 공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일, 한중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측 회장님께서 어떤 것이 더 양국의 발전에 있어서 더 이익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래 단장 :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일 FTA는 정부레벨에서 연구하는 것에 합의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나와야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중·일이라면 세 나라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반면, 한일 간의 FTA는 벌써 오래 전부터 연구해서 서로 교섭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까운 이웃이고, 또 두 나라의 체제와 환경이 비슷한 나라와 FTA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빨리 날 것이라고 생각되어, 저는 우선 한일 FTA를 먼저 하고 이를 공고히 하여, 한일

FTA가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 한·중·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안정적인 FTA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중·일 FTA가 되면 경제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역이 큰 만큼, 또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사키 미키오 단장 : 작년에 일한경제협력 회장에 취임한 이후, 이런 회의에서 조석래 회장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앞으로 한국에 중중을 계획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조석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일 양국 모두 아시아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한일이 협조해서 아시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먼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서 동아시아의 경제권을 일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FTA체결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 말 이후로 중단된 채로 있는 양국의 FTA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저희들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조석래 회장님과 정말 똑같은 의견이며, 먼저 한국과 일본이 연계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시아로 뻗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제신문 : 저는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사키 회장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기업들의 한국진출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

히, 대지진 발생 이후에 한국에 투자하는 일본기업들이 많고, 또 그런 진출들이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출이 더 활발화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장애가 되는 부분들, 한국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키 미키오 단장 : 일본기업은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국에 진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수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매력적인 해외진출처이고, 매력적인 국가라고 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기업이 한국을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난 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이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부품 등의 공급망이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같은 권역 내에 있는 한국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통상정책상으로 보았을 때도 여러 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엔화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원화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 들어 일본기업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정부에게 일본기업의 진출에 있어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노사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된 만큼, 그 영향은 더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하나 보충발언하고 싶은 것은, 최근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자원개발, 에너지개발, 인프라 건설 등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잡고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울경제신문 : 조석래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전경련 회장님으로 계실 때는 종종 공식석상에서 많이 뵈었는데, 오랜만에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유럽국가 등의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내 재계의 원로로서 이런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한일경제협회 회장으로 계시지만, 효성그룹 같은 데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석래 단장 : 지금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는 초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재정문제, 미국의 더블딥에 대한 우려 등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금융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수출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IMF때라든지 혹은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 쇼크 등을 거쳐 오면서 우리의 경제체질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일체가 되어 힘을 합쳐 나감으로써 남보다 더 빨리 회복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과 경제계가 일체가 되어 노력해 가면 이 문제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계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노력의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글로벌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경제가 회복을 하면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계경제의 어려움은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에 대해 아직도 신흥국의 성장률은 상당히 기대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신흥국에 좀 더 힘을 쏟아 거래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한일 FTA를 빨리하면 아마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사히신문 : 오늘 양국 대표님께서 한일 FTA에 대해 빨리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양국 정부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국에 있어서는 한일 FTA에 대해 소극적인 경제인도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생각인지 조석래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석래 단장 : 무역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자유화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역자유화를, 총체적으로 보아 그것이 국익이 되는 것인지, 혹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FTA를 하던지 간에 반대하는 것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소를 최소화하고, 플러스 요소를 최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양국 경제계는 한일 FTA가 양국 경제에 플러스로 크게 작용을 한다는 면에서 찬성을 했으며, 그런 것을 정부에 설명하고 우리 경제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양국 정부가 교섭해서 FTA를 체결해 주도록 하는 부탁 혹은 압력을 넣는 식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국의 경제계분들이 오늘 회의에서 정부에 대해 좀 더 강하게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측에서는 소극적인 의견을 가진 데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전체 경제에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 하는 면에서 설득을 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정부에서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대처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경제계에서 민간의 뜻을 충분히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정부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양쪽에서 체결하는 FTA가 좀 더 높은 수준의 광범위한 FTA가 좋다는 것이 우리 경제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FTA, 광범위한 FTA가 기본이 되고, 이것이 동아시아의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의 기반과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FTA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양국에서 교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FTA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키 미키오 단장 : 어제 일본 측에서 에다노 경제산업대신의 축사를 무토 마사토 시 주한일본대사께서 대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양국 간의 FTA협상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양국 간의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또 재계가 FTA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노다 신임총리 하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했고, 또 지난 유엔에서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번 회의결과를 일본정부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부처에도 보고를 하고, 조기에 FTA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본 경단련 무역투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난 무역투자회의에서 계속 얘기를 해 왔고, 또 일한 경제협회 일원으로서도 더욱 더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당연히 한일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는 분야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이 원원하는 방향으로 FTA 협상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체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선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저도 강력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래 단장 :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사키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FTA를 하게 되면 당연히 득보는 사람과 마이너스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이너스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그것은 알기 쉽게 얘기해서, 관세의 보호를 받다가 못 받게 되어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시각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 FTA가 안되어 있는데도 일본에서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FTA가 된다면 이런 투자가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도 이 FTA가 가져오는 혜택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

